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2월 17일)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코로나19 확산 국면 연등회 연기론 '무게'

조계종 교구본사회의서 논의… 단체 의견 묻기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불교계 최대 축제인 연등회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 공휴일 지정 이후 가장 빠른 4월 30일로, 연등회는 이보다 1주일 앞선 4월 24~26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봉축행사의 막을 여는 서울 광화문 점등식은 4월 8일이어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을 세운 서울시 입장과도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불교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축행사 차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봉축행사의 백미인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개최 여부를 놓고, 불교계는 연기와 강행의 갈림길에 섰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4월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봉축행사는 국민적 여론의 뭇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떠안은 부담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년 같지 않은 행사준비

예정된 연등회 일정 기준으로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이 남았지만, 불교계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질병본부관리본부 등 정부 당국은 "바이러스 잠복기간인 향후 2주가 중요하다.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국민에 당부하며, 전국 학교의 개교일도 3월 23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앞으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4월까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지는 미지수인 데다 행사 준비기간도 예년보다 대폭 짧아져 불교계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연등회 실무 현장과 일선 사찰들은 행사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매년 연등회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던 해외불교지도자 초청은 취소를 고려 중이다. 이를 담당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해외불교지도자들의 방한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계종이 베트남 불교중앙위원회 예방에 화답하고자 추진하던 베트남불교 연등회 초청도 무산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연등회 초청에 베트남 측도 기대감을 표했지만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초청하는 것은 실례"라며 "연등회 일정 변동에 따라 초청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광화문 점등식을 비롯해 연등회 각종 행사에서 플래시몹과 대외홍보 등을 맡는 외국인서포터즈 모집도 난항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대적인 모집 홍보를 할 수 없는 데다, 매년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지원율도 급감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포터즈에 지원한 외국인은 모집정원 60명의 절반수준이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신청해 향후 참가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다.

연등회는 지역단위가 아닌 특정기간 전국단위 동시행사라는 점에서도 행사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초부터 소속사찰 율동강습회를 시작한 광주불교연합회는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광주불교 율동강습회는 약 석 달간 80~100회에 걸쳐 봉축율동을 각 사찰에 알려왔지만, 코로나19로 강습회와 연희단 교육 등 부대행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광주불교연합회 관계자는 "행렬등 제작은 지난해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봉축율동 교육과 각 사찰별 봉축등 제작은 쉽지 않다"며 "학교 개학이 미뤄져 학생들의 참여도 불투명하다. 바이러스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1975년 공휴일 지정한 이후
가장 빠른 올 부처님오신날
코로나19로 봉축행사 차질
한 달 늦춘 윤 4월 여론도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 · 경북, 영남의 축을 이루는 부산 · 경남 등은 현재까지 연등회 일정 연기가 확정되지 않아 예정대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계 입장 정리에 주목

이와 관련해 3월 4일 비공개로 개최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는 원로회의, 중앙종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에 의견을 묻고 문체부, 서울시,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봉축행사 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윤4월(양력 5월 30일)로 한 달가량 봉축행사를 늦춰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단일화된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현재 윤4월(양력 5월 30일)로 한 달 정도 늦춰 봉축행사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협의회 차원에서 조심스레 총무원에 제안했지만 쉽게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봉축행사의 시기보다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봉축행사가 가라앉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사찰에서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이 이어지고 있다. 스님들의 기도와 함께 유튜브 등을 활용한 가정기도가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사찰에서는 코로나 극복기원 현수막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 봉은사가 3월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주문에 거는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봉은사**

조계종 '공공영역 참여 솔루션' 나왔다

포교원 포교연구실 '공익사업 참여연구서' 발간

불교의 직접 포교 외에 사회 공익사업을 통한 포교 방안을 연구한 종합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사회 공익사업 참여 포교방안 조사연구 보고서〉와 이 보고서의 부록 성격인 〈공공영역 참여 사례모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사회 공익사업 참여 포교방안 팜플렛〉도 발간했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 국민의 불안감과 생존위기, 고통 등에 부응해야 하는 종교의 역할을 바탕으로 사찰의 새로운 포교전략과 정책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공익사업 참여의 필요성 △정부의 사회공익사업 현황 △공공영역 참여 포교 솔루션의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포교솔루션에서는 △사회공익사업 공모를 위한 단체 설립 △자원봉사시스템 활용 △사업실행력 및 지속력 담보 위한 방안 등으로 구분해 설명됐다.

사회공익사업 공모 단체로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을 들었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설립 방법과 등록절차, 관리 방안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자원봉사 시스템 활용으로는 1365자원봉사 및 기부포털 활용과 자원봉사자 관리 및 등록 방법, 기부모집단체 가입 및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한다.

끝으로 포교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칭 '공익사업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비영리 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은 지역별로 설립에 필요한 기준이 다르기에 이를 지원하는 종합 안내, 행정기관이 불교계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영리단체 등록 방법 소개
자원봉사 관리 · 지원 안내
센터 설립 및 앱 개발 필요

정부의 새로운 사회공익사업이 공모될 때 지원센터가 불교계를 대표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일선 사찰과 스님들을 연결해주는 구조다. 롤 모델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들었다.

포교원은 또 보고서를 통해 공모사업을 사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불교계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의 개발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은 공모사업의 인력 취업 및 사업공모에 관한 앱 개발을 통해 보다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는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가 감수를 맡았고, 장재혁 前국회 보좌관불자회장과 한명우 동국대일산병원 대외협력관, 장상규 웅부문화원장 등이 관계 전문가들이 자문을 맡은 것이 특징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중의 불안감, 생존위기, 고통에 부응하지 못하는 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사찰의 새로운 포교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함으로써 불법(佛法)의 영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지홍 스님은 "이번 〈사회 공익사업 참여 포교방안 조사연구 보고서〉와 사례집을 참조해 각 상황에 맞는 사회 공익사업 접근을 통해 포교의 내비게이션 역할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교원은 이번 보고서를 요약한 팜플렛을 각 교구본사 등으로 발송해 스님들에게 배포된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INDEX 코로나19 불교계 대응 2 · 3면 | 코로나19 최전선 동국대 경주병원을 가다 5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9월 10일(목)~9월 12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200,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찾기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1일차(9월 10일 목)	2일차(9월 11일 금)	3일차(9월 12일 토)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기도로 '코로나 극복' 원력 모은다

조계종 기도 입재 · 온라인 의식집 배포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전국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교계가 산문 폐쇄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사태 극복에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대응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의 건'을 통해 전국사찰 기도정진 방침을 공개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사찰 기도정진은 3월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기도정진은 사찰 상주 대중이 매일 조석 예불 등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의식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도의식은 전통적으로 병고를 극복하기 위해 대승불교권에서 널리 독송된 경전 〈약사여래경〉과 웨살리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 부처님이 독송하도록 권한 〈숫타니파타〉 속 〈보배경〉을 중심으로 한다.



용인 법륜사 스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극복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대구 대관음사에 걸린 대구시민 응원 플래카드.

교구본사주지회의 방침 공개
〈약사여래경〉 〈보배경〉 중심
개인, 일선사찰 동참 이어져

조계종은 "사찰에서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고, 신도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에 가족과 이웃을 위한 서원의 등 달기에 동참해줄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방침에 앞서 불교계 일선현장에서는 기도 정진이 먼저 시작됐다. 특히 스님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기도가 열려 눈길을 끈다. 용인 법륜사(주지 현암)는 2월 23일부터 매일 오전 9시 30분 스님들이 대웅전에 모여 〈자애경〉 21독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법륜사 교무국장 설경 스님은 "짧은 시간 기도를 올리지만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중계 통해 가정기도 유도

서울 봉은사도 3월 2일부터 매일 사시예불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1시간 30분간 진행되는 발원기도는 사찰을 찾지 못한 신도들을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서울 조계사는 주지 지현 스님의 영상법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코로나 극복 기도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밀양 삼봉사(주지 녹원)도 24일부터 49일간 스님들이 동참하는 코로나19 특별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은 3월 9일까지 업무시간 내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하루 30분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각 사찰에서는 산문 폐쇄 중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플래카드를 걸고 조속한 회복을 위한 마음을 보태고 있다.

사찰 플래카드 등 응원도 진행

대구 한국불교대관음사는 본관 입구에 '코로나를 다함께 이겨내자'는 플래카드를 걸었으며, 대구 경북지역 사찰들도 산문 폐쇄 중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격려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광주불교연합회 등 주요단체들도 코로나 극복 기원 플래카드를 일주문에 걸 예정이다.

또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월 2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위로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연합회는 위로문에서 "언제나 위기 속에서 답을 찾은 것처럼 국민 모두가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힘을 모은다면 국난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코로나 극복 발원문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의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온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병마를 이기는 힘을 길러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공동체
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한 서원을 받아주소서.
나무 약사여래불. 나무 약사여래불.
나무 약사 유리광여래불

휴관에도 취약계층 돌봄 '현재 진행형'

[현장] 코로나19 휴관에 더 바쁜 복지관들

윤호섭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종로구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2월 1일부터 곧바로 휴관에 들어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취재진의 잇단 발걸음이 끊어진 3월 5일 아침에 찾아간 복지관은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하지만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만 보이지 않을 뿐 복지관 직원들은 매일같이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적은 인력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관 직원의 도움으로 잠긴 문을 열고 관내에 들어섰다. 열감지 검사를 받은 뒤 손세정제로 손을 씻고, 출입대장을 기록한 후에야 정상적인 운신이 가능했다. 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기자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휴관해서 편하겠다'는 세간의 오해에 항변하듯 먼저 말문을 열었다.

"복지관 휴관이라고 하니까 일 안 하고 쉬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휴관상태인 지금이 평소보다 더 바쁩니다. 종로구 확진자와 연관이 있다는 질타까지 받으니 한동안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했고요."



조 모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정관 스님. 마스크를 쓴 어르신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사진 오른쪽은 도시락을 포장하는 스님과 직원들의 모습.

'휴관=쉰다'는 세간의 오해
도시락 배달 · 안부 확인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 보내

한숨 섞인 스님의 얘기에서 해명도 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 했던 세간의 눈총으로 인한 고충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정관 스님과 구내식당으로 이동했다. 식당 한 편에서 복지관 직원들이 음식을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스님도 말없이 다가가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다. 한 복지사는 "복지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매일 60인분의 식사를 배달한다"면서 "일자리어르신들께서 하시던 일이지만 복지관이 휴관해 직원들이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관 스님과 직원들은 식탁 주위에 모여 1회용 비닐에 밥과 밑반찬을 담았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친환경복지관으로서 스테인리스 용기로 도시락을 전달하던 모습과 차이가 크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1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와 지자체 방침을 따른 것이다.

이날 복지관이 준비한 도시락 식단은 기장밥와 돼지갈비찜, 도라지 · 오이무침, 깻잎무침, 김치다. 여기다 어르신들의 주말 식사를 책임질 대체식품도 함께 포장됐다. 정관 스님은 큼지막한 주걱으로 1회용기에 밥을 담으며 "한 끼 도시락이지만 넉넉하게 담아 두 끼, 많으면 세 끼까지 어르신들 식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스님과 직원들은 1시간가량 도시락을 포장한 뒤 각각 배달에 나섰다. 스님은 청운효자동 조 모(87) 어르신댁을 찾았다. 대문을 두드리며 "복지관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외치자 조 어르신이 마스크를 한 채 환한 얼굴로 반가운 손님을 맞이했다.

"날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번거로울 텐데 매일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직원들도 다 아들딸 같고…."

도시락을 건네받은 조 어르신이 스님과 복지관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건넸다. 조심해서 돌아가라는 품 넓은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복지관은 현재 이렇게 도시락 배달만으로도 오전업무를 다 보낸다. 배달이 지연되면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거르는 일도 생긴다. 그렇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전화로 확인하며 오후를 보낸다.

"독거어르신들부터 안부를 확인하고, 외출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매일같이 말씀드려요.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발생하면 곧바로 또 찾아가고요."

청운효자동에서 함께 도시락을 배달한 한 복지사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루 일과를 설명했다. 회원 약 1만 명, 일평균 1000명이 이용하던 복지관이 문을 걸어 잠그자 복지사들은 더 바빠졌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백 곳에 달하는 불교계 복지시설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휴관이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을 다하는 복지활동가 모두가 부처님이다.

폐렴균,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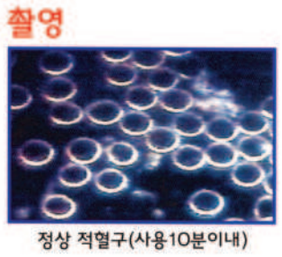
폐렴균과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폐렴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며, 폐렴 예방은 물론 퇴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는 ORAL MATE®치약은 **식중독** 및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과식**이나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 때, **취기**가 올 때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술도 빨리 깨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잇몸이 약하고 아플 때, 이가 시릴 때,** 아픈 부위에 ORAL MATE®치약을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사라집니다. 잇몸이 튼튼해집니다.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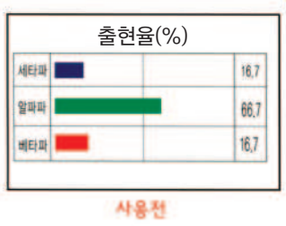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 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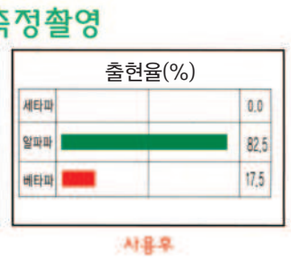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75,000**원 ●**순비누**:120g 개당 **35,000**원
ORAL MATE® ●**치 약**:120g 개당 **21,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불교, '자비'로 병마와 싸우다

종단 · 사찰 성금 기부 이어져
조계사 취약계층 생필품 전달
전국 사암련, 사찰 성금 기부
아름다운동행에 성금 답지 중
태고종 · 천태종 자비행 펼쳐
국가재난 극복 모범사례 평가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소외계층이다. 이들은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없고, 복지관에서 그간 받았던 복지 서비스 역시 축소됐다. 소외계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지금, 불교계가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간호사를 위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2일 동국대 경주병원 회의실에서 '동국대 경주병원 코로나19 확산방지 격려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전국비구니회 경북지회장 철우 스님, 총무 무구 스님, 재무 법운 스님과 이동석 병원장, 박영근 사무국장, 김현정 간호부장, 서찬 총괄지원팀장, 조희군 원무팀장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앞서 철우 스님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동국대경주병원 관계자와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전국비구니회와 회장이신 본각 스님의 뜻을 대신 전하고자 한다"며 "전국비구니회가 단초가 되어 전국의 불자들이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석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전국비구니회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비상 근무로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는 3월 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했다. 성금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소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다"면서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종단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 국가가 비상시국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사찰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전국비구니회에서 뜻을 모아주셔서 위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현정 · 부회장 상덕 · 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 사찰요리연구소장 선재 · 총무부장 보련 스님이 참석했다.

조계종은 현재 중앙종무기관 내에 '감염병 비상대응본부'를 구성, 본사 및 말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국내 지역을 돕기 위해 (재)아름다운동행을 중심으로 4월 30일까지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현재까지는 대구 · 경북지역에 1차적으로 감로수 20만개를 지원하고, 모금액에 따른 추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종단들 대구 · 경북 등에 기부행

불교 주요 종단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구 · 경북에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지회를 통해 전달된 방역 성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기원하며 태고종 종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이날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퇴치돼 국민생활이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확진자가 많은 대구 · 경북 지역민들의 고통이 큰 만큼 적으나마 코로나19 극복과 쾌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3월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후원금 5천만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천태종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전달식은 생략한 채 재해구호협회에 기금을 송금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 천태종 사회부장)는 3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원 400여 명과 인천공항 검역소 방역담당자 500여 명을 위해 비타민 음료 3000병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나누며하나되기는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해 광복회를 방문, 마스크 100개와 손소독제 550개, 물티슈 500개를 전달했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지난 2월 9일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급약품 등을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 이주노동자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주요 사찰들 생필품 · 성금 전달

전국 주요 사찰들도 기부로 코로나 19와 맞서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3월 3일 양산시청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극복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통도사는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성금은 사중 대중스님들이 함께 십시일반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식에는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기획국장 성구 스님, 교무국장 인경 스님, 재무국장 현담 스님 및 김일권 양산시장이 참석했다.









통통도사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았다"며 "마스크와 방역비용에 활용돼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병에서 보호받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시관 내 대중공공시설 종사자 및 노약자를 위한 활동으로 비용이 부족한 시기였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통도사에서 방역지원금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은 2월 28일 조계사 불교대학 1층 로비에서 급식 취약계층에 라면과 국수, 생수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은 매주 종로구 관내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락 배달 등이 어려워지자 종로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한 것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김문주 가피봉사단장, 김진여심 가피봉사단 부단장, 김진이 종로구청 희망복지지원팀장, 조은실 종로1 · 2 · 3 · 4가 주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가피봉사단이 준비한 생필품은 생수 500㎖ 4000개, 국수 12㎏ 200박스, 라면 5개들이 500박스, 세면도구 세트 500개 등으로, 서울 종로구 17개동,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 조계사는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솔)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4,157만원을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의 선방 대중스님들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기원하며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예방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측은 빠른 기금 집행을 위해 아름다운동행 계좌로 전달식 없이 바로 성금을 전달했다.

지역불교계, 코로나19 성금 답지

경상권 불교단체들의 코로나19 성금 기부도 이어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2월 28일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날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구입 및 예방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 진광 정사,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모두가 함께 관리하고 조심하며 배려해야 한다. 부산과 경남 불교 사찰들은 앞으로도 힘을 보탤 것이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불교계의 행보가 부산 시민에게 큰 힘이 된다"며 "불교계의 후원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자 기업가이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인 박수관 대표이사가 코로나 조기 종식을 기원하며 성금을 전달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YC-TEC 대표이사)은 2월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을 부산시에 전달했다.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부산지역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3월 3일 창원시청에서 '코로나19조기극복 기원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창원불교연합회 회장 월도 스님,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진해 천웅사 성우 스님, 수선정사 성일 스님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이 동참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월도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증확산으로 비상근무중인 전주 완산경찰서를 방문해 큰 컵라면 100상자(1600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진성 스님은 2월 24일 전주 완산경찰서 (서장 최원석)를 방문해 연속되는 비상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의경들의 간식으로 컵라면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진성 스님은 "최근 전북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는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의경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코로나19 확진사태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전염병보다 더 큰 위협 '두려움'

부처님은 전염병 어떻게 대처했나



그림 · 박구원

전쟁보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시대가 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환란이 세상을 흔든다. 사람들 마음속에 바이러스보다 더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전염병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전염되는 병을 완벽히 막을 방법은 없다. 병은 몸을 흔들지만, 병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은 마음을 휘감아 모두를 흔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마저 넘본다. 과거에는 전염병을 역병(疫病)이라 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막연하게 재액신(災厄神)이나 역신(疫神)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무명(無明)의 두려움이었다. 불교는 병고로 두려움을 가진 이들에게 무외시(無畏施)를 베풀라 한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야말로 가장 큰 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전 속 부처님께서는 역병의 창궐이라는 두려움에 어떤 무외시를 베푸셨을까?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을 구제하셨을까? 그리고 부처님의 대응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을까.

아함과 니까야 속 역병구제

아함과 니까야, 그리고 니까야 주석서인 니뎃사(Niddesa)는 역병이 창궐했던 바이샬리의 일을 기록해 전한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 죽림정사에서 빔비사라왕의 청을 들어 안거에 드셨을 때의 일이다. 밧지국 비사리(毘舍離, 지금의 바이샬리)성에 큰 가뭄이 들어, 기근과 함께 역병이 창궐했다. 사람들은 귀신과 나찰(羅刹)이 마을에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얼굴과 눈이 누렇게 떴고 어떤 이들은 3~4일 만에 죽어 나갔다.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버려진 시신들로 성안이 가득 차 마을은 피폐해졌다.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자 비사리 사람들은 부처님이 계신 왕사성에 마하리(最大) 장로를 보내(기록에 따라 토마라 장로라고도 함)기로 한다. 바라문교에 의지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도 보고, 자이나교 등 신흥종교에 의지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기로 하고, 빔비사라왕과 친분이 있던 마하리 장로를 마가다국에 파견한다.

마하리 장로가 왕을 찾아 부처님을 보내달라고 청하지만, 왕은 선뜻 응하지 않는다. 갠지스강을 사이에 두고 있던 밧지국과 마가다국은 서로 인종도 정치체제도 다른 경쟁국가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빔비사라왕은 부처님께서 역병이 도는 비사리로 가길 원치 않았다. 왕에게 거절당한 마하리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간곡히 비사리를 구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부처님은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국 빔비사라왕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고, 부처님은 비사리로 향한다.

부처님은 발우를 챙기고 500여 비구와 함께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길을 나선다. 빔비사라왕은 부처님을 정성을 다해 갠지스강까지 모신다. 부처님은 강을 건너 사흘을 걸어 비사리성으로 향했다. 밧지국의 영토에 발을 딛는 순간 큰 벼락이 치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싹 말라 있던 비사리의 땅은 단숨에 가뭄에서 벗어났다.

부처님은 비사리에 도착해 아난다에게 보배경(Ratana Sutta)를 설하시고 이를 사람들에게 독송하도록 권했다. 아난다는 밤새워 경문을 독송하며 부처님의 발우에 성수를 담아 뿌리며 거리를 걸었다. 시신을 치우고 거리를 청정히 했다. 사람들은 보배경을 함께 독송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곧추세우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부처님과 500비구의 일곱 날에 걸친 구제활동이 효과를 거두자 역병은 물러갔다.

경전은 바이샬리에서 벌어진 부처님의 역병 구제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보배경은 지금도 남방불교에 빠알리어로 남아 전한다. 스리랑카에 전해지는 빠알리어 경문은 열일곱 게송으로 남아있다. 삼보를 예경하고 청정한 삶을 위한 다짐을 담고 있다. 북방불교의 경우 아함경에 남아 다음과 같이 전한다.

二足獲安隱 四足亦復然　行道亦吉祥 來者亦復然 두 발 가진 사람도 안온을 얻고, 네 발 가진 짐승도 또한 그러하며, 길을 가는 이에게도 축복이 있고 길을 오는 이에게도 또한 그러하리.

晝夜獲安隱 無有觸嬈者 持此至誠語 使毘舍無他 밤이나 낮이나 안온을 얻고, 괴롭히는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정성스러운 말을 가지면 비사리성에 재앙은 없어지리.

〈증일아함〉 32권 역품

오래 전 역병 창궐한 바이샬리
부처님, 제자들과 직접 찾아가
7일간 경전 독송 · 시체 치우며
대중이 느꼈던 공포심 잠재워

1.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생들, 천인이든 사람이든 언제나 행복하기를. 그대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Yānīdha bhūtāni samāgatāni Bhummāni vā yāni va antalikkhe Sabbe va bhūtā sumanā bhavantu, Athopi sakkacca suṇantu bhāsitaṁ.

2. 자애의 마음을 아낌없이 베풀면 반드시 밤낮으로 보답을 받으니 다른 이를 정성껏 돌보고 보호하기를!

Tasmā hi bhūtā nisāmetha sabbe, Mettaṁ karotha mānusiyā pajāya Divā ca ratto ca haranti ye bali ṁ. Tasmā hi ne rakkhatha appamattā.

7.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고 수행하여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누리는 성인들, 승가는 이 세상 으뜸가는 보배,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 행복하기를!

Ye suppayuttā manasā daḷhena, Nikkāmino gotama sāsanamhi
Te pattipattā amataṁ vigayha, Laddhā mudhā nibbutiṁ bhuñjamānā Idampi Buddhe ratanaṁ paṇītaṁ, Etena saccena suvatthi hotu.

14. 과거는 소멸되고 새로운 업 쌓지 않아 마음은 고요하니 내생에 집착 없다. 번뇌의 근원이 소멸된 분들은 갈애가 사라져 흔적 없이 떠난다. 승가는 이 세상 으뜸가는 보배,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 행복하기를!

khīṇaṁ purāṇaṁ, nava natthi sambhavaṁ, virattacittā yatike bhavasmiṁ te khīṇabījā aviruḷhichandā, nibbanti dhīrā yathāyam padīpo Idampi Buddhe ratanaṁ paṇītaṁ, Etena saccena suvatthi hotu.

17. 여기 모인 우리, 천인이든 사람이든 완전한 승가에 존경을 표하니 이로써 저희에게 축복이 있기를!

yānīdha bhūtāni samāgatāni, bhummāni vā yāni va antalikkhe tathāgataṁ devā mānussā pūjitaṁ, saṅghaṁ namassāma, suvatthi hotu.

〈보배경〉(Ratana Sutta, 라따나 숫따) 중 일부

바이샬리 역병구제가 남긴 것

바이샬리에서 벌어진 역병구제 사건은 많은 교훈을 던져준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역병은 말 그대로 역신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졌다. 설명되지 않는 사건은 신비한 무언가가 되어 주술이 난무하는 해결책 말고는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취한 행동은 남달랐다.

부처님은 안거중임에도 역병이라는 재난을 맞아 구제를 청한 비사리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자신이 병에 걸릴 수 있음을 알았지만 이를 내치지 않았다. 기꺼이 역병이 창궐한 비사리로 몸소 발걸음을 옮겼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500비구를 이끌고 두려움에 떠는 비사리 사람들에게 갔다. 의학도 과학도 변변하지 않던 시대, 비사리를 구제할 이는 따로 없었다.

비사리에 도착한 부처님은 무엇보다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역병보다 더한 병임을 알았다. 보배경을 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사람들 마음속에 자라나던 혐오와 불신을 걷어내고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심었다. 그리고 시신을 치우고, 발우에 물을 떠 오염된 마을을 깨끗이 했다. 그렇게 일곱 날이 흐르고, 마침내 역병이 물러갔다. 진정한 무외시의 실천이었다.

부처님은 위험을 마다않는 헌신으로 종교의 큰 가르침을 일깨웠다. 마음의 평정으로 두려움을 잠재우고, 청정한 마을을 만들어 역병을 물리쳤다. 바이샬리 사람들은 마하바나(大林)를 비롯하여 몇 개의 승원을 지어 교단에 보시했다.

이 사건은 여러 경전에 담겨 전해진다. 증일아함과 불설보살본행경, 잡아함 35권 염삼보경, 숫다니파타, 쿳다까니까야 등이 그것이다.

전해지는 것은 경전뿐이 아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 그날의 감동은 파릿따(Paritta, 보호경 독송)라는 남방불교의 의식에 담겼다. 미얀마와 태국에서는 파릿(Parit)으로, 스리랑카에서는 피릿(Pirit)으로 불린다. 이 의식은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을 독송하며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한다. 주로 독송되는 경전은 앞서 소개한 보배경(Ratana sutta)을 비롯해 자애경(Karaniya Metta Sutta), 축복경 (Mangala Sutta) 등이다. 파릿따 의식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 세 가지 색으로 엮은 실을 함께 잡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청정한 삶을 서원하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두려움과 불교

지금 우리 사회에는 코로나19 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떠돌며 병을 옮기고 사람들 마음에 구멍을 내고 있다. 그 구멍으로 공포와 불안이 파고 든다. 두려움은 혐오와 미움을 부르고 그것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은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이라 말한다. 두려움이 없으니, 거꾸로 뒤바뀐 헛된 생각도 멀어진다는 말이다.

2500년 전 부처님이 행한 비사리에서의 역병구제는 재난상황에서 불교가 해야 할 바를 알려준다. 마침 교단과 불자들이 나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 불교는 그런 종교다. 어느 때보다 널리 퍼진 두려움을 걷어내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유권준 불교방송 뉴미디어팀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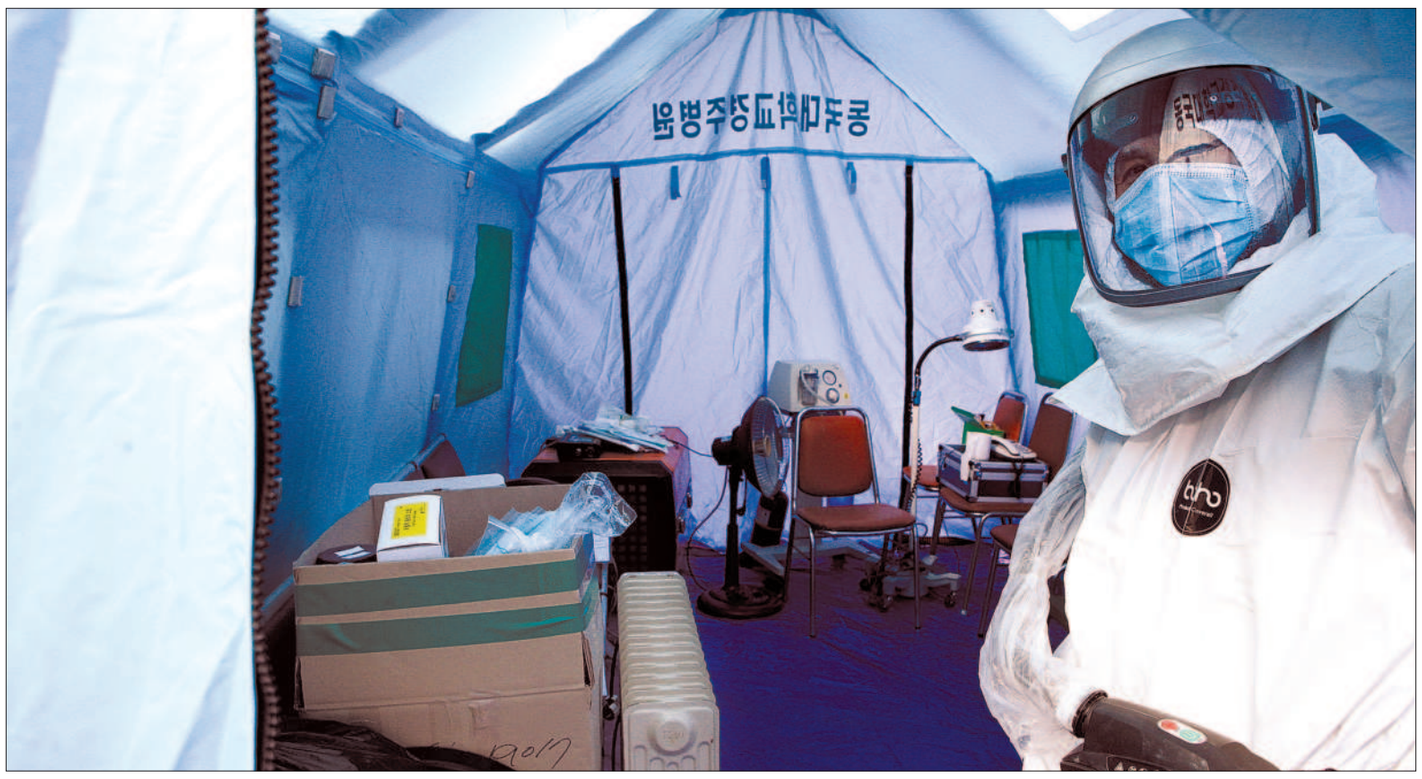
“나는 의료인”… 사명감 하나로 맞서

코로나19 최전선 동국대 경주병원을 가다

음압병실 의료진들 사투 중
환자 식사, 청소까지 도맡아
사태 진정될 때까지 격리돼

경북서 음압병실 유일 운영
경주 · 의성 등 확진자 입원해
선별진료소 설치…예방 앞장
3일 완치자 퇴원 “희망 봤다”

경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검체채취실 앞에 방호복을 입은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진이 서 있는 모습. 천막 안에는 간이 음압기가 보인다.


음압병실 복도 끝에 있는 의료진의 모습. 음압병실의 의료진들은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나올 수 없다.


3월 3일 동국대 경주병원 입원 확진자 중 완치자가 처음 나왔다. 병원 측은 완치 환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음압병실에 들어간 의료진은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압병동에서는 진료 외에도 환자들의 식사와 청소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오직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는 병원 의료진들의 사명감은 투철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모두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접촉을 피해야 하는 시기이다. 안전을 위해 확진자 동선으로 밝혀진 공간은 모두 폐쇄해야 한다.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지역병원의 중요성을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정 교단의 방일함으로 인해 대구 · 경북 확진자 수가 매일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지역에 있어야한다.

경북 지역 내 유일하게 ‘국가지정격리병상(이하 음압병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바로 동국대 경주병원이다.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며 지역 내 감염 전수조사에 앞장서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동국대 경주병원을 3월 2일 방문했다.

음압병실은 동국대 경주병원 8층에 위치했다. 기존 음압병실은 3실 5병상으로 운영됐으나 방문 당시에는 간이병실을 확장해 5실 24병상을 설치 중이었다. 3월 1일 간이음압기가 들어와 추가로 들어 올 환자를 위해 병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에만 경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더 들어올 예정이었다. 출입금지 표시와 함께 문을 닫은 곳, 음압병실 긴 복도 끝에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지금 현재는 음압병실에 입원한 환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병실을 늘려 30여 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게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간호사와 의료진들을 추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이동석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상황을 설명했다.

방문 당시 병원에는 경주시 3명, 경산시 3명, 의성군 3명, 영천시 1명, 청도군 1명 총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중이었다. 이 중 한 명은 생후 45일 된 최연소 확진자도 있다. 대부분도 중증 환자 혹은 고위험군으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들은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했다. 의료진이 안전해야 환자들도 보호 받을 수 있다. 담당 의료진들은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숨조차 쉬기 힘든 고된 시간을 보낸다. 외부 노출을 차단하는 방호복은 머리까지 덮어온 몸을 감싸야 했다. 고글과 장갑은 필수이다. 제대로 숨 쉬기조차 힘들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답답함으로 참기가 힘들다. 오직 사명감만이 그들을 견디게 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그나마 동국대 경주병원은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타 의료원은 방호복이 제대로 구비 안 된 곳이 있어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병을 옮기게 될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영안실에서 쪽잠을 자며 괴로워합니다. 10일 정도 지나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병원이면 방호복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물품이 갖춰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지역 작은 병원들은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역 감염으로 확산돼 지역 곳곳에 전문 시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동국대 경주병원에 국가지정격리병실이 만들게 된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이룬 성과가 아니다. 전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여러 감염질병이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둬 가능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전문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사스가 발병했을 때 준비하던 중이었고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는 저희 격리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모두 완치돼 퇴원을 했지요. 오랜 기간 감염학과 예방의학을 연구한 전문의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지금 그 전문의들은 질병이 터질 때마다 역학조사에 나서고 지역 감염을 추적하며 접촉을 관리합니다.”

격리병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역의 편견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이동석 병원장은 “메르스 사태 때는 당시 청정지역이었던 경주에 환자를 데리고 왔다며 병원 근처에는 접근도 말라는 소문도 돌았고 원망도 들었다. 당시에는 음압병동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였다”며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니 지역민들이 현수막을 제작해 감사의 뜻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예방’이다. 지역 곳곳에 감염의 원인이 되는 확진자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래서 선별진료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국대 경주병원 외부에는 선별진료소가 따로 설치됐다. 추운 겨울이지만 외부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다. 또 감염병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병원 밖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졌고 검체채취실은 천막으로 지어졌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공간과 천막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들을 만났고 외부에는 직원들이 안내를 하며 돕고 있었다. 직원들은 자진해서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추위에도 바람 한 점 피할 곳 없는 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고되고 힘들어도 마음은 뿌듯하다고 했다.

병원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미경(43)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감염 확률이 높지만 진료 협력을 위해 나섰다”며 “찾아오는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독이며 응대하려 노력 중”이고 말했다.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주홍(30) 씨는 “사태가 사태인 만큼 긴장감은 높지만 병원의 일원으로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항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역할을 다하려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선별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은 차 안에서 우선 대기한다. 안전을 위해서이며 대기 번호를 정해두고 순번이 되면 전화로 연락해 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감염 치료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입원 및 내원으로 병원에서 마주해야 할 모든 환자들의 안전도 담당해야 한다.

환자들을 위해 병원 정문에는 발열체크는 기본이며 인적사항을 기재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다. 정문을 지나면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 한 번 더 확인을 거친 뒤에야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

정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병원 직원들이다. 자진해서 봉사하며 환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기침, 가래, 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진료소도 따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병원 바로 옆 건물에 호흡기 내과를 운영해 철저히 구분한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안전을 위한 독립된 호흡기 내과 진료로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방문 다음 날인 3월 3일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병원 내에서 처음으로 퇴원한다는 전언이었다.

병원에서는 퇴원하는 환자 A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감사의 뜻을 의료진이 아닌 환자에게 전달한 것은 ‘완치’라는 희망을 안겨준 것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에 A씨 역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신 교수님과 간호사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제공한 영양실 직원 여러분들과 직원 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지친 음압병동 의료진과 함께 하고자 여러 부서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음압병동 근무를 신청하고 있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보여주는 동료애와 환자애로 따뜻함을 안겨주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2020학년도 불교의식(범음, 범패)교육원 신입생 모집

본원은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으며 영산재를 계승 및 발전 유지하고 후진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의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아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

수료 과정 및 강주

모집반		교육내용	강 주	요 일	시 간	모집조건	교육기간
1학년	1학기	기본 이론 및 예불, 각종 사물 다루는 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목	오후2시 ~오후6시	모든종단 승려	1년과정
	2학기	각단불공 및 시식					
2학년	1학기	범음범패, 바라작법, 나비작법등 고급과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금	오후2시 ~오후6시	초급반 이수자	1년과정
	2학기	실전대비 의식진행 전문과정					

◈응시자격
- 입 학 : 모든 종단의 승려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의 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장
- 전형일정 : 2020년 2월 ~ 3월말까지(접수가능)
- 개 강 일 : 2020년 3월 19일(목요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금호동)
- 입학문의 : 법륜사 종무소 062-655-7444,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법진스님) 010-9606-3981
  연구원 교학처장(명휴스님) 010-7941-0017

2020년 2월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 현불 논단 |

코로나19 공포, 그 극복의 길



홍사성
계간〈불교평론〉 주간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
죽음의 공포에 대한 저항 그려
코로나19 한국 · 오랑 상황 겹쳐
확진자 급증엔 신천지 영향 커

전염병 창궐 베실리 찾은 붓다
500여 제자와 도시 청소 나서
공포 이긴 주민들 동참해 극복
보건수칙 지키며 공포와 싸우자

카뮈의 소설 〈페스트〉는 죽음의 공포 앞에 인간이 어떻게 저항하는가를 보여주는 명작이다. 알제의 해안 도시 오랑이 페스트균에 감염되자 정부가 이 도시를 봉쇄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펼쳐지는 소설은 죽음과 공포, 이별과 절망 같은 비극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숨 막히게 그려낸다.

소설은 4월 어느 날 아침 주인공인 의사 리유가 진찰실을 나서다가 층계참 한복판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인구 20만명의 조용한 도시 오랑에 페스트가 퍼진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진다. 장례를 치르기는커녕 쓰레기 소각하듯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극한에 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도피, 체념, 반항 등 세 가지다.

기자 랑베르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도망치려고 한다. 신부 파눌루는 신이 내린 형벌이라면서 신의 뜻에 따르자고 설교한다. 반면 리유를 비롯한 사람들은 '침묵하는 신만 쳐다보는' 대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건대를 조직하고 있는 힘을 다해 반항하며 페스트와 싸운다.

카뮈가 소설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운명에 대한 윤리적 선택인 '반항'이다. 극한의 공포와 불안일수록 저항으로 극복해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페스트〉를 읽다보면 코로나19로 공포의 도가니가 된 우리나라 상황이 겹쳐진다. 최초 감염자가 생긴 이후 두 달이 채 못돼 감염자수는 5천명이 넘어섰다. 많은 국가들이 감염을 우려해 한국에서 온 여행자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나라 전체가 소설 속 오랑시처럼 봉쇄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신흥교파인 신천지교회의 밀착접촉 예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세시대 흑사병 창궐을 막기 위해 성당에 모여 기도하다가 전염이 확산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불교의 한 경전(〈증일아함〉 32권 역품)은 상업도시 베살리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불교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여준다. 경전은 이 도시가 '귀신이 병을 일으켜 죽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사람들은 얼굴과 눈이 누렇게 되어 3, 4일 만에 죽는 자도 있었다'고 적고 있다.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안거 중임에도 500명의 제자들과 왕사성을 떠나 재난지역으로 들어갔다. 베살리에서 부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다.

"삼보는 우리를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시니 삼보에 진심으로 귀의하면 성 안의 모든 재앙이 없어지리라. 두발 가진 사람도 안온을 얻고 네발 가진 짐승도 그러하고, 길을 가는 이도 행복하고 길을 오는 이도 또한 그러하리라."

빠알리 경전 소부 〈보배경〉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한다. 부처님과 제자들을 발우에 물을 담아 뿌리고 청소를 했다. 마침 비가 내려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갔다. 공포에 떨던 사람들도 나와서 거리를 청소하고 부처님을 모셨다. 그리하여 공포의 도시 베살리는 평화를 되찾았다.

수많은 의료진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감염병과 싸우는 모습은 베살리로 향하던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이런 행동에서 억누를 수 없는 희망의 의지를 본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회피하거나 체념할 것이 아니라 보건 수칙을 지키며 적극적 방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일상의 평화는 바이러스 공포와 싸워 이겨야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다.

社 說

연등회 연기는 국민적 여론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3월 5일 기준 확진자는 6천명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오는 4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를 비롯한 봉축행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로,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가장 빠르다. 45년간 4월의 부처님오신날이 처음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부처님오신날에 한 주 앞서 매년 치르던 연등회도 4월 24~26일로 정해졌다.

분명 연등회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불교계가 쉽사리 봉축행사 연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리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가 4월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면, 불자들의 지탄이나 행정 변화로 겪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연기를 결정하지 않고 시일을 보내다 4월까지 이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불교계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최고의 결과가 무엇인지보다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봉축행사를 연기해야 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윤4월로 봉축행사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월초파일과 윤달의 의미가 큰 불교계에서 찾은 대안이자 지혜다. 물론 윤4월까지 지금의 코로나19가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봉축행사 연기는 지인과의 모임, 외출, 종교계의 집회나 행사까지 자제하거나 취소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뜻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특정 교단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전 국민의 손가락질 받는 이유를 되돌아볼 때다.

공익사업 지원센터, 시대적 과제

사회 공공영역 확대에 맞춰 불교계의 대응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에 관련된 종합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포교원이 최근 〈사회 공익사업 참여 포교방안 조사연구 보고서〉를 펴낸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찰의 공익사업을 통한 포교전략이 두루 담겼다. 그동안 불교계는 사회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공익사업 분야에서 기독교계의 다양한 접근에 비해 뒤늦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사회의 공공분야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영리 육성 정책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는 대중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해석하고 답을 줄수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려면 공공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대중의 불안과 생존위기와 같은 고통에 무감각하고 응답하지 못한 종교는 쇠퇴하기 마련이다. 사찰은 사회와 유리될 수 없고, 공공영역과도 무관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공영역 참여 방안으로 비영리단체, 법인 등 사회공익사업 공모를 위한 단체 설립과 자원봉사시스템 활용과 지속 가능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중 공익사업 지원센터는 종단 차원에서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앞으로 확대되는 공공분야의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불교계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정확한 정보공유를 통해 일선 불교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봉사자의 관음 미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자고 일어나는 속속 늘어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 임상 현장인 병원은 더더욱 삼엄한 분위기가 감돈다. 우선 병원에 들어가려면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불교법당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미 2월 초부터 포교 환경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20여 봉사자들도 일을 중단하고, 한명의 봉사자가 법당 문을 열고 닫는 일만 지속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 서울의 한 시립병원 지도 법사로 활동할 때 만난 환자가 떠오른다. 환자들이 거의 퇴원해 병실이 많이 비었고 타종교 기도실도 문 닫고 휴관에 들어갔다. 나도 불교 법당 문을 당분간 닫을까 고민했다. 그 와중에 한 환자분이 불교 법당을 방문했다. 양쪽 다리관절 수술 후 얼마 안돼 메르스 사태가 터지다보니 퇴원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이었다. 가족 방문이 불허돼 고립된 상황이지만 용기 내어 퇴원을 미루고 재활을 받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스님 병원 법당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처님 전을 향해 연신 합장 기도하며 천진불처럼 웃는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그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어 법당문을 계속 열었다. 환자는 매일 보행기에 의지한 채 법당에 내려와 부처님께 참배하고 한참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심신의 상실감을 달랬다. 입맛이 떨어져 힘들 때 마침 공양물로 들어온 마른 김으로 입맛을 돌린 후 "부처님 덕분에 살았어요"라고 하던 말이 귀에 지금도 맴도는 듯하다.



그림 · 최주현

이런 경험이 있던 터라 불교 법당 문을 닫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봉사자 한 분에게 불교 법당 문 여는 일을 부탁했다. 봉사자는 흔쾌히 승낙했다. 정초기도가 끝나고 법당서 만난 봉사자는 "고맙다"는 나의 인사에 오히려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예전에 한 노보살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노보살은 한국전쟁이 터지고 절로 피난 했는데 그곳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께 마지를 올렸단다. 그 결과 모두가 무탈하게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고 했다. 봉사자는 그러면서 "스님, 그 보살님이 생각나면서 저도 그런 행을 요즈음 흉내 내고 있습니다"라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관음의 미소였다. 위기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병원 법당을 지키는 그 모습은 분명 관음의 모습이었다. 그의 말없는 행원에 그저 머리가 숙여질 뿐이다.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
남순동자불문문(南巡童子不聞聞)
병상록양삼제하(甁上綠楊三際夏)
암전취죽시방춘(巖前翠竹十方春)
백의관음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네.
화병의 푸른 버들 항상 여름이고 바위 앞 푸른 대나무 온통 봄빛이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원 로 원 장 : 혜일
율 원 장 : 무공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정,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동안, 도불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자명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화광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학산
국제포교원장: 천산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부회장: 도은
재무: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법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전남, 광주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경남총림 봉곡사
제주총림 법련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현대불교
7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제 1284 호

부처님 그늘 안 '詩心傳心'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문태준 시인
(50·BBS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장)

김천시 용화사서 첫 불연
고향 자연풍경서 詩 품어
1994년 중앙문예 시 등단

1996년 BBS불교방송 입사
2000년 첫 번째 시집 출간
두 번째 시집 〈맨발〉 주목
불교 공부로 詩 시계 넓혀

시집 7권, 산문 등 출간
禪적인 시 세계 모색 중



문태준은…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국문과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처서(處暑)' 외 9편이 당선되어 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1996년 BBS불교방송 라디오제작국 PD로 입사했으며, 현재는 라디오제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시집으로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동서문학상, 노작문학상, 유심작품상,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서정시학작품상, 애지문학상,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2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오래된 한 생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의 삶 속에 자리해 왔다. 그리고 중생의 삶과 더해진 그 한 생각이 다시 부처님의 그늘을 넓혀간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깊은 글을 쓰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다 깊은 성찰을 발견하면서 대중은 살아간다. 그리고 다시 그 일들이 부처님의 세상을 넓힌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시 한 편이 누군가의 마음을 넓히고, 부처님 말씀에서 비롯된 노래 한 편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좀 더 넓어진 부처님의 그늘에서 살게 된다. 어느 시인은 부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시가 더욱 깊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부처님 그늘에 들어와 시로 부처님의 그늘을 넓혀가고 있는 시인 문태준이다.

부처님 그늘

김천에서 태어난 문태준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 그는 직지사 말사인 용화사 부처님을 핸드폰 속에 모시고 산다.

"예닐곱 살 때부터 절에 다녔는데 그저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간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그 시절이 저의 많은 길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때 그렇게 부처님을 아무 뜻 없이 만났던 일, 뜻 없이 절 마당을 걸었던 일, 스님의 뒷모습을 가까이서 보았던 일, 그런 시간들이 저를 또 다르게 키웠던 것 같아요."

문태준은 정해진 길을 가듯 부처님 그늘로 걸어 들어갔다. 문태준은 그 시작이 유년시절 고향의 작은 절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 뜻 없던 일들이 불연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아무런 뜻도 모른 채 걸어 들어간 길이 부처님의 그늘이었고, 그 그늘은 문태준의 길이 되었다.

시를 만나다

문태준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글'에 관심이 많았다. 글짓기대회가 있을 때마다 참가했다. 그리고 여러 번 수상했다. 문태준은 그쪽이었다. 문태준의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었다. 길은 정해졌다. 문태준은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진학한다. 그리고 시를 만난다. 문태준은 국문과에 진학하면서 신문기자를 그렸다. 하지만 문태준은 시 창작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와 가까워진다.

"2학년 여름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 시를 많이 읽었어요. '시인'을 그리기 시작했죠. 제가 살고 있는 농촌이라는 공간이 깊은 우물이라면 깊은 우물로부터 '시'라는 맑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도 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때부터 문태준은 시와 정면으로 앉는다.

시인 문태준 그리고 육조단경

문태준은 복학 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4학년 때인 1994년 마침내 시인으로 문단에 이름을 올린다. 문태준은 '처서' 외 9편의 시로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한다.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취업부터 해야 했어요.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에겐 좋은 인연이었어요."

문태준은 1996년 BBS불교방송에 입사한다. 문태준에게는 두 번째 부처님 그늘이다. 부친의 권유로 진학이 아닌 취업을 결정한 문태준은 교내에 붙은 채용공고를 찾아 나섰다. 문태준이 처음 만난 채용공고는 'BBS불교방송 라디오 PD 모집' 공고였다. 문태준은 필기시험에서 〈육조단경〉의 한 구절을 답으로 써냈다. 그리고 합격했다.

"대학교 수업에 〈육조단경〉이 있어서 한 학기를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막연했지만 유년시절 고향에서 경험했던 뜻 없는 불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의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제 눈에 〈육조단경〉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울러 게송이 담긴 〈육조단경〉이었다는 게 또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다른 경전이었다면 그때까지 기억에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시인의 길을 걷기로 했던 문태준에게 〈육조단경〉에 담긴 게송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문장들이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인연으로 이어졌다.

문태준의 시

2000년, 마침내 문태준은 첫 시집 〈수런거리는 뒤란〉을 발표한다. 문태준이 시인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4년에 발표한 두 번째 시집 〈맨발〉부터다.

문태준의 시는 고향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고향의 자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먼 산으로부터 몰려오는 비, 골짜기를 넘어가는 눈보라, 아궁에서 꺼낸 따뜻한 잿더미로 죽은 염소를 덮어주시던 아버지의 손, 오고 가는 계절의 견고한 모습들, 물안개 핀 저수지의 풍경, 문태준은 고향의 자연에서 '공유'를 배웠다고 했다. '함께 쓰는 것', '함께 사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들로 비롯된 것들이 시로 건너갔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 〈중략〉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 〈후략〉"

시집 〈맨발〉에 실린 '맨발'의 일부다. 문태준의 시는 첫 시집을 발표하고 난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시집 〈맨발〉에서는 불교가 보이기 시작했다.

"시집을 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그때마다 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집의 시부터 문장 속에 불교적인 언어와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태준은 BBS라디오제작국 PD로 일하면서 부처님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다. 부처님 가까이 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문태준의 시에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언어와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어진 세 번째 시집 〈가재미〉로 문태준은 더욱 많은 조명을 받는다.

"아마도 BBS PD로 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시는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인으로서의 문태준에게 BBS라는 일터는 중요한 '서론'이었으며, 그 속에서의 하루는 깊은 '본론'이었으며, 쌓여가는 세월은 단단한 '결론'이 되었다. 문태준은 그렇게 매일매일 부처님과 가까워졌다. 그렇게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문태준이 시를 쓴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늘을 넓히는 일이 되었다.

선적인 영감들, 기웃거리지 않을 시간들

"최근에 쓰고 있는 시는 또 한 번 다른 무늬를 보이는 것 같아요. 서사나 이야기 구조보다는 문득 일어나는 순간의 생각들, 깨침들, 문자 뒤에 있는 것들이 문장의 가운데에 서는 것 같아요."

문태준은 그동안 불교를 넓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왔다. 이제 세월이라 부를 수 있는 문태준의 시간 속에는 선(禪)적인 영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문 작가가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면서 많은 스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만들어낸 또 한 번의 넓힘과 깊어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스님들과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깊은 정서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식들의 선적인 시들이 고향의 비처럼, 산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인 문태준은 선사들의 선시들 속에서 또 다른 '시'를 보기 시작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새로운 시였다. 새로운 시를 이야기하는 시인의 눈은 벌써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두 번 다시 기웃거림 없이 오래 그리고 조용히 정진하고 싶다"

문태준이 말하는 앞으로의 계획이다. 문태준의 계획은 지난해 12월 입적한 적명 스님이 생전에 남긴 말씀이다. 유고집에 옮겨 모신 스님의 문장을 문태준이 다시 가슴에 옮겨 심었다. 이제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는 문태준, 그에게는 오래오래 조용히 걸어갈 일만 남았다. 그의 기웃거림 없는 시를 기다린다.



2009년 한·러 문학인의 만남에 참석한 문태준 시인(우측 3번째).

문태준의 시집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4~3/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유선경 / 홍창성	운주사
2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3	요가 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4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7	안녕 다람살라	청전스님	운주사
8	수좌적명 :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의 유고집	적명스님	불광출판사
9	달라이라마의 지혜 명상	달라이라마 / 최로덴	모과나무
10	10분 치유 명상 : 문화 치유 명상	송주 김응철	불교신문사

책세상



달라이라마의 지혜명상
툽뗀 진빠 편역/최로덴 옮김
모과나무 펴냄/1만 8천원





10분 치유명상
글 김응철
불교신문사 펴냄/1만 8천원

부처님 법문 모두 반야 지혜 위한 것

1993년, 달라이라마의 법문 정리
불교 실천 수행에 대한 깊은 통찰

달라이 라마는 인도불교사의 한 축을 완성한 샨띠데바의 〈입보리행론〉 제 9장 〈지혜품〉의 심오한 게송들을 놀라운 통찰력과 특유의 알기 쉬운 언어로 풀어낸다. 더불어 정(正)과 반(反)의 모순을 극복한 합(合)의 통찰을 통해 공존의 아름다움과 화합 정신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이 책 〈달라이 라마의 지혜 명상〉은 뒤 따라가는 대승 제자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한다. 1993년 11월, 달라이 라마는 프랑스 티벳불교센터연합회 초청으로 바즈라요기니연구소서 1주일간 법문했다. 당시 유럽 여러 나라서 수많은 참석자들이 이 법문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그 내용은 이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주요 언어로 번역돼 출간되었다. 법문 주제가 무엇 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공유하고 널리 알려지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지혜' 였다.

이 책은 당시의 법문 내용을 잘 정리해 담았다. 사실 달라이 라마는 이보다 앞선 1991년에 프랑스 도르도뉴서 개최된 법회서 이와 관련한 가르침을 편 적이 있다. 지혜를 터득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에 관한 것이다. 이는 7~8세기경 인도 불교학자 샨띠데바 보살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산스크리트 원전은 시(詩)로 돼있어 유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어 대승불교 문학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다. 달라이 라마의 제자이자 이번 책을 영어로 번역한 툽뗀 진빠 스님은 "이 고전적인 인도 불교의 문헌이 티벳인들에게 그토록 많이 사랑 받는 이유는 아마도 게송의 아름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 문헌의 저자인 샨띠데바는 원력을 품은 보살의 다양한 수행적 요소와 함께 개인적 통찰을 담은 일련의 게송들을 대부분 1인칭 시점서 서술합니다. 1970년대 망명 티벳인들이 정착촌을 형성한 남인도의 그 작은 승원에 딸린 옥수수 밭서 일하던 그 노동 시간에도 이 게송들을 암송하며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 문헌의 티벳어본 게송들은 원래부터 티벳어로 쓰여진 시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완벽히 계량된 시문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이 암송하고 기억하기가 좋습니다."라고 밝혔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1991년 법회 때는 제 9장 〈지혜품〉의 경우 시간이 부족해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치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지혜품〉은 샨띠데바의 문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는 1993년 프랑스서 이어진 법회에서 〈지혜품〉의 내용을 구체적인 게송에 따라 심도 깊게 설명했다.

〈지혜품〉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일체의 방편 법문은 모두가 다 반야의 지혜를 위해 설하신 것"이라는 게송으로 시작한다. 이 내용은 단순해 보이지만 부처님 법의 핵심을 꿰뚫는 심오한 통찰을 담았다.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깨달음(無上菩提)은 자신을 괴롭히는 물리적 고행이나 번잡한 종교의식 혹은 맹목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길들이는 수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 이라고 설했다. 샨띠데바가 저술한 〈입보리행론〉 제 9장 〈지혜품〉의 원래 제목은 반야바라밀이다. '반야' 는 중생들을 해탈 열반의 길로 인도하는 자리이타의 지혜이며, '바라밀' 은 부처님의 지혜와 행적을 따라가는 실천행(大悲行)이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은 이타중생의 지혜를 실천하는 깨달음의 길(菩提道)이다. 번뇌와 망상은 물론 본능에 잠재된 습기마저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이 다 함께 해방되는 길인 것이다. 옮긴이 최로덴은 "〈입보리행론〉의 반야바라밀을 해설한 이 책은 현교와 밀교의 가르침은 물론 최고의 논리를 구사하는 불교철학의 대가로서 달라이 라마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성자일 뿐만 아니라, 경전과 논리와 수행을 통해 반야의 지혜를 완성한 성취자이자 회향의 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그가 왜 티벳의 주요 종학파와 사부대중 모두의 스승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하루 10분 씩만 명상으로 치유를

일상의 문화생활 명상 전환하면
직면한 고통이나 문제 치유가능

생활명상 주제는 화두처럼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현상을 떠오르는 대로 집중하는 방식이 있다. 10분 명상서 매일 주제를 드리는 것은, 불교와 명상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매일 다른 주제로 마음의 집중을 경험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4자성어로 명상 주제를 만들면 일상서 공부하는 데 유익한 점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오랫동안 강단서 불교와 명상에 대해 연구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10분 치유명상〉을 출간해 일반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이 책은 문화치유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술됐다. 처음에는 명상 초심자들이 〈대념처경〉을 바탕으로 불교 명상법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 생활을 명상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서 누구나 일상의 문화 생활을 명상으로 전환하면 자신이 직면한 고통이나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 문화치유 명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명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저자 김응철 교수는 문화치유 명상은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일상생활서 누구나 체험하는 문화를 명상으로 활용한다. 명상에 문화를 가미시키면 공감과 소통, 나눔과 배려, 그리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명상은 혼자서 체험하는 정신적 특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명상에 입문하는 초심자들이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쉽게 입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문화치유 명상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명상을 추구한다. 치유(治癒)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서 직면하는 우울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치유 명상이 이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스스로 직면하는 고통을 자각케 해주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다.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각하고 확신하게 되면 이것이 이고득락이며 자가 치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치유 명상은 37조도품을 활용한다. 이는 고타마 붓다가 언급하거나 설명하는 37가지의 도품(道品) 즉 수행법(修行法)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네 가지 현상을 관찰하는 사념처(四念處), 참회와 정진의 근본이 되는 사정단(四正勤), 선정명상의 정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여의족(四如意足), 번뇌를 극복하고 성불의 길로 이끌어 주는 오근과 오력, 일곱 가지 깨달음의 고리인 칠각지, 여덟 가지 바른 실천을 강조하는 팔정도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치유 명상에서는 37조도품을 생활 명상법으로 응용해 일상서 명상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37조도품서 일관되게 강조한 염(念)을 중심으로 명상 수행의 기초를 닦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이다.

이 책은 문화도 활용하며, 치유도 될 수 있고,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10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171개의 사자성어를 활용해 생활 속에서 10분 정도 잠시 명상 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초심자들을 위해서 불교 초기 경전인 〈니까야〉(아함경)를 비롯해 대승경전과 여러 논서들, 그리고 고사성어 등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들을 명상 주제로 선정했다. 주로 사자성어를 선택해 기억하기 쉽도록 했고, 이와 관련된 부처님 가르침을 제시함으로써 명상의 길잡이가 되도록 배려했다.

문화치유 명상은 명상 프로그램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동명' 이라는 단체를 결성해 연구와 시연을 한다. 문화치유 명상은 문화로 공감하고 재미있게, 일상의 고통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쉬운 명상법을 보급하기 위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주일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니까야〉서 찾아낸 부처님 명상



고따마 붓다의 정관명상
혜담 지음/ 민족사 펴냄 / 1만3천800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의 뿌리를 찾는 신간이 출간됐다. 고따마 붓다의 명상을 다룬 〈고따마 붓다의 정관명상〉이다.

책은 고따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명상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준다. 저자 혜담 스님은 〈아함경〉과 〈니까야〉 등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을 토대로 50년 수행체험과 깊은 사유를 통해 붓다가 최초로 발견한 명상의 본래 모습, 사마타(定)와 위빠사나(觀)의 세계를 밝히고 있다. 혜담 스님은 그 동안 대승경전에서 볼 수 없었던 '반야바라밀'을 〈니까야〉에서 찾아냈다.

저자 혜담 스님은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하여 오래도록 '공사상(空思想)'과 '반야사상'을 연구해 왔다. 귀국 후에는 수십 년 동안 선수행을 하면서 도심포교 도량으로 유명한 불광사에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지도해 왔다.

스님은 요즘 명상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동기다.

책은 세속적인 욕망에 기인한 건강이나 성공 등이 아닌, 인간 존재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수행으로서의 명상, 고따마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인 명상의 본래 모습을 보여준다.

"처음 〈아함경〉과 〈남전대장경〉을 통해 연구하던 중 다행히 〈니까야〉를 연구하고, 각묵 스님과 전재성 박사 등 선학(先學)들 덕택에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메울 수 있었다"는 혜담 스님은 우리 모두가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처방전을 받아 나누어 주기 위해 고따마 붓다의 명상법에 대해 집필하게 되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명상을 통해 오욕락(五欲樂 ·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을 제어한다면 욕망이 자타(自他)를 함께 이롭게 하는 기쁨과 보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아! 세간의 중생들은 극심한 괴로움을 받나니 곧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며, 또한 가지가지 고뇌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 전전하여 떠나지 못하는구나. 어찌하여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고, 어찌해서 괴로움을 싫어하고 고요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며, 어찌해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생각지 않는가." (불본행집경)

혜담 스님은 고따마 붓다의 어린 시절의 명상 체험에 주목했다. 위 경전의 내용처럼 고따마 싯다르타는 중생들의 삶에 대하여 고뇌하면서 명상에 들었다. 선정을 닦는다는 생각조차 없었고, 단지 고통스러운 보통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하며 골똘히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 현상세계를 벗어난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날 명상에서 얻은 신비한 체험은 뒷날 고행과 선정수행 때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째 선정을 얻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고따마 붓다는 첫 번째 명상 스승인 아라다 깔라마와 두 번째 명상 스승인 우드라까 라마뿌뜨라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스승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선정과 고행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담 스님은 고따마 붓다가 어릴 적의 명상 체험을 떠올림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역설한다.

그간 대승경전서 볼 수 없었던
'반야바라밀' 〈니까야〉서 찾아

붓다가 찾아낸 명상 본래 모습
사마타(定)와 위빠사나(觀) 세계
붓다 유년시절 명상 체험 주목
힘든 현대인 위한 행복 처방전

고따마 붓다 이전에는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고따마 붓다의 수행법은 대승불교권에서는 지관겸수명상으로 불렸다.

지관은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멈추게 한다는 의미의 지[止, 사마타]와 자신의 본래 청정한 본성을 끊임없이 지켜본다는 의미의 관[觀, 위빠사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보조국사 지눌이 주창한 정혜쌍수 역시 정(定)은 사마타의 다른 번역이고, 혜(慧)란 반야(般若, prajñā) 즉 '최고의 지혜' 혹은 '깨달음의 지혜'로 마음의 본래 성품을 본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정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본래 청정한 성품을 끊임없이 비추어 살펴보는[觀照]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따마 붓다는 어떻게 깨달았을까? 혜담 스님은 "고따마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수행은 당시에는 없었던, 독자적인 방법을 계발하여 네 번째 선정을 증득한 것으로, 어릴 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지관겸수명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혜담 스님은 한글세대가 알기 쉽고 위빠사나의 본래 의미인 '관찰'이나 '분석'의 뜻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번역한 '지관명상'이나 '정혜명상'이 아닌 '정관명상'이라고 명명했다.

혜담 스님은 "고따마의 어릴 적 체험인 '정관겸수명상'의 경우 정(定 · 사마타)과 관(觀 · 위빠사나)은 서로가 동시적으로 밑받침이 되는, 상호(相互)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정명상(定冥想)을 의지하여 관명상(觀冥想)에 도달하고, 정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선정[三昧]을 바탕으로 관명상에 의한 지혜가 발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 근심 걱정 등 온갖 번민을 없애고 편안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관명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인지가 발달할수록 고따마 붓다의 명상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정(定)이라는 약으로 생사의 병을 치료하고, 관(觀)이라는 약으로 번뇌의 병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책은 고따마 붓다의 정관명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전에 의거 사성제와 팔정도뿐만 아니라 연기법 등 불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 교리와 수행에 대해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혜담 스님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범부로 자처하며 미혹으로 인해 현상 저 너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상과 생각 저 너머'를 중도, 바라밀이라고 하면서 명상을 하던 참선을 하던 염불을 하던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할 것이 없는 데까지 가버리면 그곳이 바로 '현상과 생각 저 너머'라고 강조했다.

"첫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성(本性)이 불성(佛性)이며, 불성은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체의 지혜, 일체의 공덕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일체가 자신의 본래성품이 지닌 공덕이고 일체가 형상이 없는 본무상(本無相) 가운데서 나타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본성 · 불성진리만 있고 그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뿌리에 들어가면 그 진리 본성뿐이요, 대립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13쪽~114쪽)

혜담 스님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정법은 우리 모두가 동일 법성을 가진 동일자라고 아는 것, 동일자인 까닭에 서로 위해주고 섬기고 받들어 주고 자비로써 대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이고, 불교의 수행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책의 백미는 정관 명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이치라는 것이다. 스님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해 달라고 해야 내가 복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야 내 손과 발이 건강한 것이고, 손과 발이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고 말한다.



혜담 스님은… 부산 금정산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승가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불교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칠불선원, 해인사 선원 등에서 참선 수행, 해군 군종법사 대위 전역했다. 불광사 불광법회 지도법사 · 조계종 총무원 홍보실장 · 소청심사위원 · 호법부장 · 재심호계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불교신문 논설위원 · 경향신문 정동칼럼 필진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저서 및 역서로 〈대품반야경(상 · 하)〉, 〈불교 상식 백과(공저)〉, 〈반야불교신행론〉, 〈新 반야심경 강의〉, 〈한강의 물을 한입에 다 마셔라〉, 〈방거사 어록 강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라〉, 〈진리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베트남 민주화 이끈 고승 잠들다

틱쾅도 스님 입적… 종교 · 정치적 자유 강조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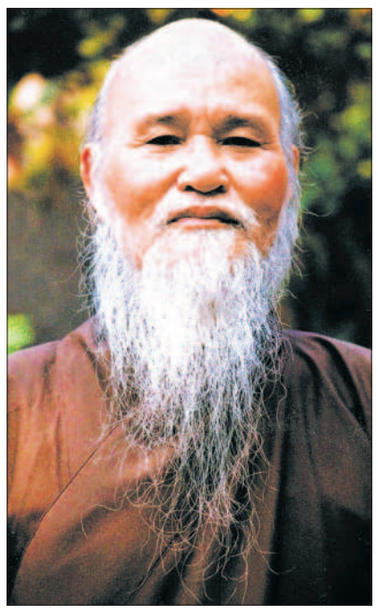
베트남의 민주화와 종교적 자유를 위해 외로이 싸워온 노스님이 끝내 입적했다. 지난 2월 24일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 는 베트남의 존경받는 원로, 틱쾅도(Thich Quang Do) 스님의 입적을 보도했다.

틱쾅도 스님은 세납 92세, 법랍 78세로 입적에 들었다. 입적은 파리 국제불교정보국에 의해 확인됐으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제불교 정보국의 대변인은 "틱쾅도 스님은 2003년부터 베트남 정부에 의해 호치민시에 위치한 투히에우(Tu Hieu)사원에 가택연금 중이었으며 외부인과의 접촉도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생전 당뇨병과 심장질환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틱쾅도 스님은 14세에 출가했다. 스님은 17세에 은사인 틱둑하이(Thich Duc Hai) 스님이 공산혁명재판소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당시 스님은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도므어이(Do Muoi)에게 "광신(狂信)과 편협을 타파하고 불교의 비폭력, 관용, 자비의 가르침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데 내 인생을 바칠 것을 맹세했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베트남 전쟁 종전 후 틱쾅도 스님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비폭력 투쟁을 도모한 죄로 투옥됐다. 이후 그

법랍 78 · 세납 92세 일기로
사원서 가택연금 중 입적해
공산주의 비판, 비폭력 시위
수많은 인권상 받은 원로승



1998년 호치민감옥에서 출소한 틱쾅도 스님. 사진출처=뉴욕타임즈

의 행적과 공개성명 발표에 대한 정부의 보복으로 10년간 망명생활을 했다. 84세의 노모와 함께 추방되었으며 노모는 영양실조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지리적, 이념적 분열을 종식시키고 베트남 남북의 반체제 인사들 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한 다양한 문학작품과 번역서, 베트남 불교 연구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저술로 베트남 사회에서 존경 받는 학승이었다. 틱쾅도 스님의 대표 저술은 〈베트남 민주화 호소문〉으로 복수 정당제, 자유선거, 독립노조 등 베트남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왜곡하는 모든 문화와 이념의 폐지를 요구하는 8개항으로 된 호소문이다.

스님은 여러 차례 정부의 종교 탄압에 대한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2005년 국제연합(UN)에 전달한 성명서에 스님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없이 빈곤과 불의에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진정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인권은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 없이 인권은 보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틱쾅도 스님은 30년간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비폭력 시위를 통한 그의 용기와 인내로 노르웨이의 라프토 인권상을 포함한 다수의 인권상을 수상했으며,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여러 차례 오른바 있다.

스님은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며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했으며 정부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택연금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정부가 매 시간,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모든 통제가 무너지고 국민이 일어나는 순간이 올 것이며 베트남에도 민주주의가 꽃 필 것"이라 희망했다.

고대 불교유적, 사기업 관리 부실

주 정부가 산업용으로 위탁, 대중 개방 막혀

인도의 고대 불교문화 유적이 사기업의 손에 넘어가면서 관리 부실 상태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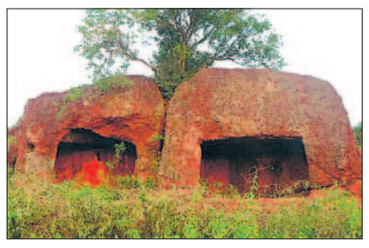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동부 쿠타크 지역 차우바르에 위치한 고대 불교문화 유적 '아수라 비하라 동굴(Asura Vihara cave)' 이 사기업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비영리단체 인도국립예술문화유산 신탁(The Indian National Trust for Arts and Cultural Heritage, 이하 INTACH)은 "주 정부가 해당 유적지를 포함한 땅을 산업용으로서 사기업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해당 동굴은 기원전 2세기~1세기 경 조성된 우다야기리 · 캇다기리 석굴과 유사한 형태로, 같은 시기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다야기리 · 캇다기리 석굴은 총 35개의 불교 및 자이나교 석굴승원으로 구성된다.

이 동굴에서는 불상 등 주요 유물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벵골 출신의 라마프라사드 챈다(Ramprasad Chanda) 등 유명한 역사가이자 고고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 이 장소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고고학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INTACH는 마하나디 강 일대 문화유산을 조사하던 중 3개 암석 동굴로 구성된 이 유적지를 발견했다. INTACH의 마하나디 문화유산 조사팀의 관계자 애닐 디르(Anil Dhir)는 "이 동굴은 당초 자이나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훗날 불교 승려들에 의해 사용됐다"며 "현지 불교도들은 수년 간 이곳에서 예불 의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사기업의 관리 부실 위기에 놓인 불교유적 아수라 비하라 동굴. 사진출처=IGNCA

하지만 이 유적지가 사기업의 관리 하에 넘어가면서부터 일반 대중의 사용이 금지됐다. 마을의 불자들은 이를 강력히 항의했지만 무소용이었다. 애닐 디르는 "주 정부가 해당 유적지의 고고학적 가치를 간과함으로써 역사에 큰 불운으로 남았다"고 안타까워했다.

INTACH 측은 "해당 유적지가 다시 회수돼 주정부에서 관리, 일반인과 주민들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보호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보존을 위해 적절한 안전 및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러시아 불교도, 새해맞이 행사 열어

러 연방 칼미크 공화국 기념법회와 전시회 개최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믿어온 러시아의 칼미크 공화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불교의례가 열렸다. 2월 24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는 칼미크 공화국의 중앙사원에서 열린 새해 행사를 보도했다.

칼미크 공화국은 티베트 역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새해를 맞이했다. 티베트 역법에서 음력 새해의 첫 달은 '순백의 달(月)' 로 불린다. 이 달에는 어떠한 선행이나 수행을 하든 그 공덕이 10만 배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 다양한 법회와 기도회가 열린다. 티베트 불교문화권에 속하는 칼미크 공화에서도 이를 기념해 새해맞이 법회와 전시회가 열렸다.

새해 첫날, 칼미크 공화국의 수도 엘리스타에 위치한 부르칸 박신 알탄 수메(Burkhan Bakshin Altan Sume)사원에서 대규모 기념법회가 열렸다. 사원은 2004년 달라이라마가 기공법회를 집전했고, 총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칼미크 최대의 불교사원이다.



새해맞이 예불을 올리는 칼미크의 스님들. 사진출처=칼미크 중앙사원

이날 법회에서 칼미크의 스님들은 칼미크 신화에 등장하는 호법여신인 '오콘 텡그리(Okon Tengri)' 에게 기도와 공양을 올리는 특별한 의식을 봉행했다. 법회장엔 거대한 오콘 텡그리의 탱화가 걸렸고, 스님들이 의식을 집전하는 동안 불자들은 탱화를 향해 절을 하거나 전통적인 기도문들을 염송했다.

칼미크 설화에서 오콘 텡그리 여신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세상을 파괴하려했던 사악한 왕과 결혼하여 왕과 왕자를 불법으로 교화하고 천상으로 돌아갔다. 이후 여신은 새해 첫 달인 순백의 달 동안 세상에 내려와 불법을 지기며 선업을 쌓는 이들을 축복한다고 한다.

법회는 러시아 · 시베리아 달라이라마 대사인 텔로 툴쿠 린포체를 법주로, 칼미크 승단의 지도자인 샤진라마(Shajin lama)가 이끌었다. 또한 칼미크 공화국 정부수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 법회에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칼미크 공화국의 수반들은 샤진라마로부터 지장보살의 큰 원력처럼 더욱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일할 것을 당부 받으며 '지장보살 기념상' 을 수상했다.

텔로 툴쿠 린포체는 이날 법문에서 "순백의 달은 봄이 도착하고, 자연이 깨어나 새 생명이 움트는 아름다운 미래의 희망을 상징한다. 이는 칼미크 민족이 태고부터 보존해 온 최고의 전통과 풍습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가치이자 신념인 불법에 대한 발전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나타낸다"며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가열차게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모든 법회가 끝나고 사원의 3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는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사위성의 신변' 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6사 외도를 조복하기 위해 보인 15가지 기적을 15폭의 탱화로 묘사했다. 이 탱화들은 달라이라마가 사원에 기증한 작품들 중 하나다.

칼미크 공화국 지역의 모든 사찰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보름간 대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새해의 시작을 수행 정진으로 시작하는 러시아 불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김민재 객원기자

영향력 큰 지도자 1위 '달라이라마'

왓킨스 선정 100인 중… 2위 프란치스코 교황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사진>가 왓킨스(the Watkins)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불교 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라마는 왓킨스 선정 20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 100인 중 1위에 꼽혔다. 왓킨스는 영적 서적만 취급하는 대형 서점으로, 1893년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졌다.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 100인을 선정하고 있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해당 명단에 오른 주요 인물로는 2위 프란치스코 교황, 3위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5위 유명 토크쇼 진행자 겸 기업가 오프라 윈프리, 7위 틱낫한 스님 등이 있다. 그레타 툰베리, 오프라 윈프리 등이 선정됨에 따라 해당 100인 명단은 종교를 초월한 영적 지도자를 조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왓킨스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불교 철학에 대한 가르침은 물론, 국가를 초월한 평화 작업으로 친절과 연민을 실천한다"고 평했다.

달라이라마는 앞서서도 꾸준히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1위), 오프라 윈프리(2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1위)에 이어 2위였다. 달라이라마가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했던 것은 2016년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道, ‘최대 다수 최고 깨달음’ 실천”

불교평론 봄호 ‘중도의 철학’ 주제 다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요즘 같은 갈등과 분열의 시기에 강조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中道)’이다. 어느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양극단에 대한 비판’을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의 말처럼 ‘정향적(正向的)’이다. 이 같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봄호(통권 81호)는 중도 철학의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중도의 철학, 양극화 극복의 길’을 주제로 한 특집에서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학 교수는 ‘중도의 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통해 중도 철학의 실천론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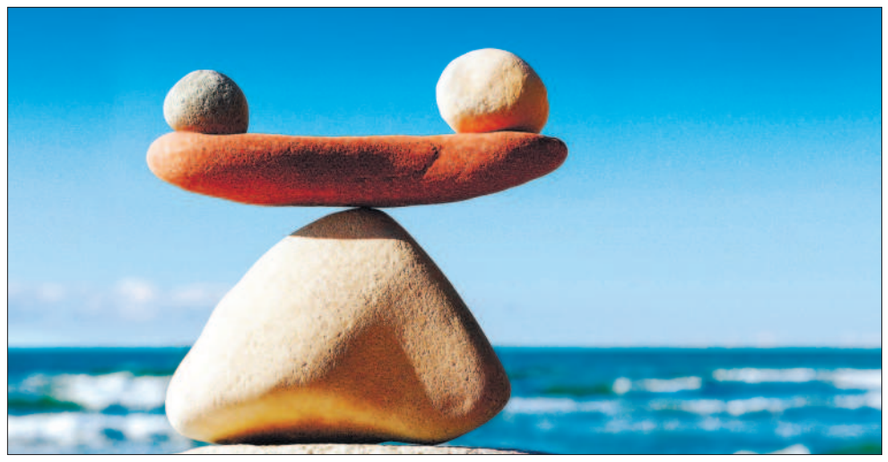
그는 어떠한 행위가 깨달음에 기여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산출하는 ‘깨달음 산출 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중도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창성 교수는 “모든 사건과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깨달음에 얼마나 기여 또는 역행하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가치가 부여된다. 그래서 불자들은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 원리’는 자연스럽게 팔정도를 포함하며 현대인의 복잡한 삶에서 각각의 경우마다 올바른 길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며 “가장 적절하고 옳은 길을 찾아주는 원리가 중도를 따르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 원리가 바로 중도의 원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재영 〈불교평론〉 편집위원이 권두언에 제시한 ‘중도의 실천’도 눈길을 끈다. ‘불이중도(不二中道)’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나와 남을 고립시키는 아상이라는 울타리를 부술 것을 제언했다. 실재하지 않는 허상인 아상은 “세상을 나누고 대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서재영 위원은 “중도의 시작은 아상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도의 길은 나에게 치우치지 않고 너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인식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좌우 균형을 맞춘 돌처럼 중도는 어떻게 실천 · 구현해야 하는지가 당면과제다. 〈불교평론〉봄호는 중도철학의 실천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홍창성, 깨달음 산출원리 전제
공리주의 입각한 실천론 제시
서양 · 유교 등서 중도 다루어
창간 21주년 맞아 지면 혁신
‘불교소설’ 매호 개제될 예정

이어 “모두가 우한을 탈출할 때 환자를 돌보기 위해 우한으로 달려간 의사들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진료에 진력하기 위해 곱게 기른 머리카락을 잘랐다”면서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일 때 남을 배려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양보하고, 공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중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불교평론〉 봄호 특집에는 △왜 중도철학을 말해야 하는가(신상환) △불교는 왜 중도를 가르치는가(이중표) △유교는 왜 중용을 강조하는가(최일범) △서양은 중용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장영란)가 실렸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은 이번 호부터 창간 21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획으로 지면을 혁신했다. 표지는 창간 당시 디자인으로 바꿨으며, 지면은 독자들 눈높이에 맞춰 보기 쉽게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앞으로 매호 수록되는 불교소설이다. 이는 침체된 불교 문단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봄호에 게재된 첫 소설은 1983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이상문 소설가의 ‘불호사(佛護寺)’다.

매호 시인들이 발행한 시집 중에서 불교 관련 시를 5편씩 골라 소개하고, 저명인사들의 신앙고백인 ‘나의 삶 나의 불교’도 신설됐다. 이번 봄호 ‘나의 삶 나의 불교’는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를 지낸 홍신선 시인이 ‘시와 선, 하나 혹은 둘?-나의 시, 나의 부처님’ 주제로 글을 썼다.

현대불교학을 개척한 불교학자를 조명하는 ‘세계의 불교학자’와 세계고전을 불교적 안목으로 공부하는 ‘불교로 읽는 세계고전’도 신설됐다. ‘세계의 불교학자’에는 △난조 분유-근대불교학의 새 방법론을 제시하다(이태승) △말라라세케라-신념과 철학을 행동으로 옮기다(김한상)가, ‘불교로 읽는 고전’에는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박찬국)가 각각 수록됐다.

고려 ‘육조대사법보단경’ 보물된다

문화재청, 3일 지정예고
‘最古’판본으로 가치 높아
고려 과거합격증도 함께

고려시대 간행된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후기 선종 경전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을 비롯해 630년 전에 발급된 고려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을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되어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육조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려시대 간행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의 서문.

사천 백천사 소장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됐던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다”면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육조대사법보단경〉은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 · 서지학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특히 홍패에는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예고한 고려시대 〈육조대사법보단경〉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 중지

코로나19 여파로… 봄 · 가을발표회 통합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가 3월 21일 개최하기로 했던 봄논문발표회를 중지키로 했다.

불교학연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21일로 예정돼 있던 본논문발표회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중지된 봄논문발표회는 오는 9월 19일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열기로 한 가을 논문발표회와 통합해 개최하기로 했다.

임승택 불교학연구회장은 “코로나19의 예기치 않은 만연으로 인해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격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일선 교수와 연구자들의 건강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여름 군산엔 ‘문화재 夜行’ 뜬다

8월 13~15일 내항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재 답사가 진행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군산 문화재 야행(夜行)’이 군산의 여름밤을 책임진다.

전북 군산시는 “한밤의 문화재 체험행사인 ‘2020년 군산 문화재 야행’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내항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문화재 답사와 함께 전시, 공연, 체험 등 4개 분야 6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장 일대에는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대한제국 시대에 지어진 군산세관, 조선은행, 일본 제18 은행, 신흥동의 일본식 가옥 등이 있다. 1899년 개항 이후 도입된 외부 문물과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근대 문화유산들이다.

군산시 관례자는 “군산 문화재 야행은 일제강점기 역사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에너지 파동 성명학
창업·지도자반 모집

■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이름만 듣고 운명을 말해주면 신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소리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의 에너지가 발생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는 순간 파장을 타고 널리 퍼져 나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같은 소리지만 어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소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어떤 에너지의 힘 때문입니다. 즉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 입니다. 소리파장으로 부르는 이름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작명. 개명. 법명. 호. 회사이름. 상호. 각종번호. 집 주소. 핸드폰번호. 차량번호에 따라 소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회사명을 개명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합니다.
힘들 때 이름을 바꿔보세요.

서울
서울동국대 미래융합대학
1. 에너지 성명학 : 3월 13일(개강) 14 - 16시
2. 융합명상가족세우기 : 3월 13일(개강) 18시 ~ 20시

천안
접수처 :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호 학마을 명상선원
성명학 수시모집 : 010-8634-7851
융합명상과 내면의 고민 치유(가족세우기)
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까지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26-16번지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 남천역 2,4번출구
성명학 수시모집 : 010-5515-0918(간사)
융합명상과 내면의 고민 치유(가족세우기)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에너지 파동 성명학회장 도윤(정행) 스님

백문이 불여일견!

초청하면 지역별 방문! 견본으로 염불을 해보면 내 귀에 내 염불이 지극히 편안해서 염불 테크닉이 잘 들어감으로 공양간 보살들이 스님! 염불이 와이리 좋아졌노?! 테프 소리보다 훨씬 낫다. 갑자기 왠일이고? 몰려오면 사찰 중흥이 확실함으로 기존 법당 시설가의 절반가에시설 장기할부 가능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시설 명단제공

본품은 본사의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장점 : 1. 초간편시설 2. 앰프다루기 1초 3. 고장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서원 된 사찰, 사찰 된 서원



이상근의
聖寶流轉

⑤ 사찰과 서원



소수서원에 남아있는 숙수사의 당간지주. 소수서원은 성리학을 전래한 안향을 모셨는데, 안향이 공부한 곳이 숙수사라고 한다.

백운동 서원, 숙수사터에 창건
당간지주 등 흔적들 여럿 남아
동학사, 유생 내분에 사격 유지
도산서원 승려 장인 참여 건립
아산 강당사, 폐서원서 연원 둬



도산서원 중 도산서당. 퇴계 살아생전에는 서당만이 있었다. 이 서당을 지어 준 사람들이 승려 장인들이다.

숙수사지에 세워진 '최초' 서원

'남순북송(南順北松)' 이라는 말이 있다. 한강 이남엔 순흥, 한강 이북엔 송도라는 뜻이다. 순흥은 지금의 경북 영주 일대를 가리킨다.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여기가 한때는 나름 번다한 지역이었다는 얘기다. 물론, 고려 말까지 얘기다.

순흥부(順興府)가 첫 번째 파란을 맞은 것은 세조 3년이다. 순흥으로 귀향 와 있던 금성대군(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사전에 발각된다. 1457년(세조 3년) 6월이었다. 그해 8월에 세조는 순흥부를 아예 없애 버린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순흥부 폐지와 함께 "그 고을만을 혁파하는 것으로 족히 악(惡)을 징계할 수가 없다"며 "그 창고(倉庫)와 관사(館舍)를 파괴하고, 그 기지(基地)를 허물어버리라"고 이조에서 건의를 하고 왕 역시 그리 하라고 허락한다. 이때 엉뚱하게 유탄을 맞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숙수사(宿水寺)다. 일설에는 숙수사 스님들도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공식' 기록은 없다. 유자(儒者)들의 난리에 한창 위축되어 있던 스님들이 또 다른 유자들의 '거사' 에 동참했을 개연성은 낮다. 여하튼 신라 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오던 숙수사의 역사는 관군이 지른 불에 허무하게 사라졌다.

순흥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된 건 1541년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에 의해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나중에 소수서원 편액을 받는다)이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얄궂다. 불탄 숙수사 터 위에 자리 잡은 것이다. 물론 '인연' 을 찾자면 찾을 수는 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안향을 모셨는데, 안향과 그의 후손들이 한때 숙수사에서 글공부에 매진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하튼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된 최초의 사찰 터는 숙수사다. 아직도 당간지주를 비롯해 옛 숙수사의 흔적이 여럿 남아 있다.

이밖에도 서원이 옛 절터 위에 들어선 경우는 많다. 가장 확실한 기록으로는 영봉서원을 들 수 있다. 16세기 이후 불교 세력이 크게 밀리고 유자들이 득세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서원이 될 뻔했던 동학사

한때 서원이 될 뻔 한 사찰도 있다. 바로 공주 동학사(東鶴寺)다. 동학사의 창건 연대는 길게 잡아 신라 시대까지로 올라가지만 그때는 지금의 터도 지금의 이름도 아니었다. 작은 암자였던 동학사는 신라가 망하고 류차달이라는 이가 이곳에 신라의 충신 박제상을 제사하기 위해 동학사(東鶴祠)라는 사당을 지으면서 함께 일신했다. 사당이 번창하자 절 이름도 아예 동학사(東鶴寺)로 고쳐지었다. 현재 박제상을 모신 사당 이름은 동계사(東鷄祠)다. 동학사도 한때 동계사(東鷄寺)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있었다.

동학사에는 이밖에도 조선 단종을 모신 사우인 숙모전,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 이색, 길재를 모신 삼은각 등이 있다. 이 세 곳은 현재 사찰 건물들과 잇대어 있는데 이를 통틀어 동학삼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세가 기울자 아예 여기 서원이 들어선다. 이름도 동학서원(東學書院)이었다. 그런데 헌종 때 사달이 나고 만다. 본래 정규흠이라는 사람은 공주 향교 담당자였는데 동학서원을 관리하던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정규흠이 동학서원의 관리를 맡으려고 하자 일이 틀어진 것이다. 서로 관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급기야 이 이야기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다. 헌종 2년, 왕은 "서원을 다시 헐어 절로 만들게 하고 옛날대로 스님들에게 수호할 것"을 명한다. 유생들 간의 내분으로 절이 기사회생한 경우다.

사찰이 지어준 도산서원

앞에서 이야기한 소수서원이 '최초' 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면 그 이름과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 라는 수식어가 붙은 서원은 도산서원이다. 우리나라 성인치고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많아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1975년 발행돼 2007년 신권이 발행되기 전까지 1,000원 권의 뒷면에는 도산서원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도산서원이 처음부터 그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퇴계가 환갑을 맞았을 즈음인 1560~1561년 사이에 우선 '도산서당' 이 완성되었고 퇴계가 죽은 지 6년 후(1576년)에 퇴계의 위패를 모시고 도산서원이 지어진다.

그런데 도산서당을 지어준 이가 사찰, 정확히는 두 승려의 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스로 평면도를 그린 퇴계는 안동 용수사의 법연(法蓮) 스님에게 서당 건립을 부탁한다. 그런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법연 스님이 입적을 하자 법연 스님의 제자인 정일(淨一) 스님이 마무리한다.

기록에는 두 스님의 법명만 등장하지만 정황으로 보면 법연과 정일 스님은 공사를 총괄한 '대목' 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용수사 그리고 인근 사찰의 스님들이 동원돼 서당 건축에 힘을 보탰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승려 집단이 유일했을 것이다. 특히 용수사 스님들은 지역의 건축 불사에 수시로 나섰던 기록이 있다. 1972년 봉정사 극락전 해체 보수공사 때 발견된 상량문에는 '지붕이 새고 초석이 허물어져 지정 23년(공민왕 12년, 1363) 예안의 용수사 축담 스님이 중수했다' 는 기록도 보인다.

이밖에 퇴계와 용수사와의 인연도 작용했을 것이다.

1500년경 서울에 있던 퇴계는 고향에 있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용수사에서 있는 기제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는 전갈이었다. 이어 '한 달 안에 있을 단오제 때는 절에 들어가기로 하고 아들도 절에 오도록 당부' 한다. 용수사는 퇴계 집안의 기제사를 지내던 곳이었고 퇴계도 거의 빠짐없이 절에서 행하는 기제사에 참석했다. 이런 인연이 서당(서원) 건립에 절이 앞장섰던 이유다. 물론 젊은 시절 용수사는 퇴계의 공부방이기도 했다.

사찰이 된 서원 '강당사'

마지막으로 짧게 사찰 하나를 소개한다. 번외편이라고 불러도 좋다.

아산의 강당사다. 이 사찰도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다. 원래 이곳은 조선 영조 때 경연과(經筵官)을 지낸 이간(李柬)이 지기들과 학문을 강론하던 서원이었다. 그런데 1868년 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리자 이를 모면하고자 가까운 마곡사에서 불상 한 분을 모셔다 봉안하게 된다. 절이 시작된 내력이다.

그런데 불상을 모시고도 한동안은 절의 기능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다 1995년 조계종 소속의 비구니 스님들이 사찰에 들어와 살면서 사찰이 현재의 모습으로 일신하게 됐다. 예전 서원의 모습도 일부 남아 있고 책을 보관하던 서고 터도 그대로다. 대웅전은 옛 서원 영역 뒤편에 새로 지어 놓았다.

빈대(儒子)가 들끓어서…

조선조 500년 내내 사찰과 스님들은 유자(儒子)들에 의해 끊임없이 시달렸다. 산천 유람길에 스님들에게 경마잡이를 시키는가 하면 사찰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때론 불상을 부수기도 하고 값이 나가는 건 훔쳐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폐사가 된 곳에는 서원을 세우거나 조상의 묘를 쓰기도 했다.

조선 시대 폐사된 사찰에 남아 있는 구전 중에는 유독 '절에 빈대가 들끓어서 스님이 불태우고 떠났다' 는 이야기가 많다. 실제 절에 그렇게 빈대가 많아서 스님이 절을 불태웠을 리는 없다. 그게 전국에 폐사된 사찰마다 반복되었다는 것도 개연성이 전혀 없다. 여기서 등장하는 빈대는 아마 유자(儒子)였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들이 많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오늘 겪는 어려움, 재충전 기회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⑤ 외환위기와 코로나

위기, 끝없는 위험으로 몰아갈지 기회로 만들지는 우리 몫.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가 크다. 외신은 우리나라 피해가 그토록 크게 두드러진 까닭이 높은 의료수준에 행정이 열려있기 때문이라고 도두본다. 고마운 일이다. 어려운 가운데 마음 놓인다. 그렇다고 고통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것은 환자뿐만이 아니다. 여느 사람들도 여간 고통스럽지 않다. 바이러스가 옮을까 봐 걱정스러움을 넘어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태가 언제 가라앉을지 몰라 두렵다.

병균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전염 된다

법정 스님은 외환위기를 맞아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무서운 대상보다는 마음 작용에 따라 일어난다, 마음에 그림자가 생기면 무서움을 느낀다, 사람이 만든 도시는 갑자기 돌변해서 무섭다, 사건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병균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전염된다고 말씀한다.

"한 순례자가 순례길에서 흑사병(페스트)과 마주치자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흑사병은 바그다드로 5천 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며칠 뒤 순례자는 되돌아오는 흑사병을 보고 따졌다. 너는 내게 5천 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째서 애먼 사람을 3만 명이나 죽였느냐고. 흑사병은 '나는 내가 말한 대로 5천 명만 죽였소. 나머지는 두려움에 질려서 스스로가 죽은 것' 이라고 말한다."

스승은 이어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 초대를 받아 우리 앞에 온 것이지 우연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잘못 길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한다. 아울러 걱정에 빠진 사람은 근심거리를 끌어들인다, 그러나 희망에 넘치고 신념에 찬 마음은 희망과 신념에 찬 우주 기운을 끌어들인다,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한다.

"위기인 것은 맞지만, 위기가 끝은 아니잖아요."

대구 시민이 방송에서 한 말이다. 듣는 순간 코끝이 시큰했다. 닥친 위기는 비껴갈 수 없다. 그러나 위기를 끝없는 위험으로 몰아넣을지 기회로 만들지는 오롯이 우리 몫이다.

스승은 또 안으로 자율성을 잃으면 바깥에서 제재하는 것이 우주 흐름이다, 현실이 곧 우리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시련이 없다면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와 후손들이 건전하게 살아가려면 마땅히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말씀한다.

이번 일을 겪으며 잃은 것은 무엇일까? 가장 크게 잃은 것은 건강과 목숨 그리고 생계를 잇는 일이다. 숨을 거둔 분들에게 애도를,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빈다. 그리고 잃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를 이루는 마음이다. 두려움에 떠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 잇속만 챙기는 사재기로 하루에 1,000만 장이 넘게 만든다는 마스크가 동이나 돈을 들고도 살 수가 없다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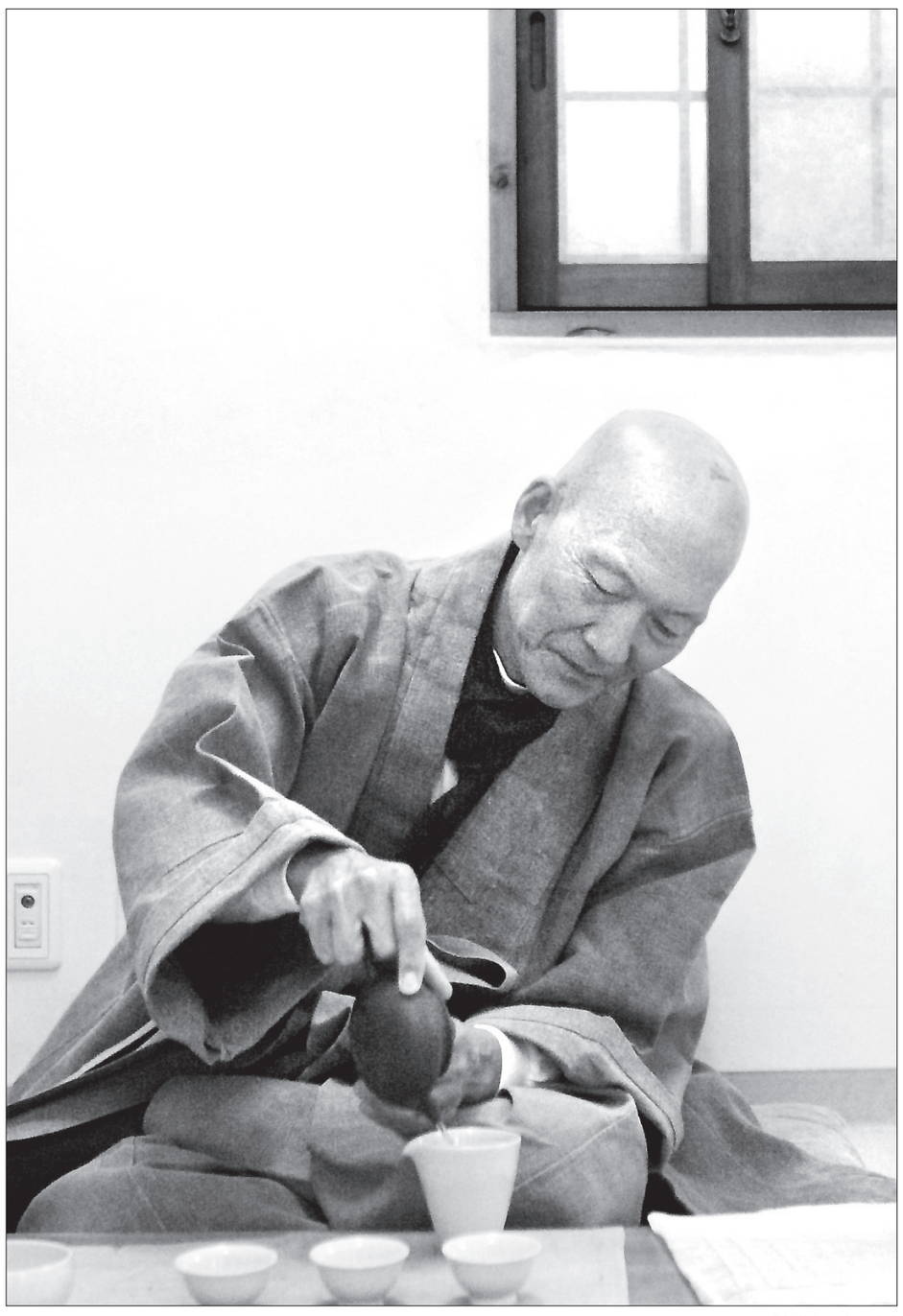
스승은 "한 마음 밝게 먹으면 밝은 세상이 열리고, 한 생각 어둡게 몰고 가면 끝없는 구렁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고마운 '다리' 도 놓여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함정' 도 입을 벌리고 있다. 온갖 비극 씨앗은, 눈앞에 놓인 일에만 생각이 콕 박혀서 한 생각 어둡게 먹기 시작한 데서 싹 튼다. 속지 말 일"이라고 하셨다.

코로나 감염 대중 두려움
스스로를 죽이는 기제 돼
어떤 요소 재난 원인인지
살피고 작은 것에 기쁨을

이 북새판에 얻은 것도 적지 않다. "도와달라"란 한 마디에 1,000명 가까운 의료진들이 달려가고, 손님이 없어 밥집에 쌓여가는 음식 재료를 팔아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며, 손님이 오지 않아 텅 빈 가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처지를 헤아려 집세를 내려주는 이들도 있다. 메마른 줄 알았던 땅에 인정이 되살아난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승이 풀이한 〈보왕삼매론〉에서 몇 꼭지 뽑아 간추린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은 물질과 정신이 모여 이룬 유기체이기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앓을 때 병이 주는 뜻을 터득하라. 튼튼했을 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앓으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웃에게 고마움도 느껴야 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앓으며 새로운 눈을 뜨라. 이 몸이 늘 튼튼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은 주어진 건강을 쓸모없는 곳에 쏟아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몸에 든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으나 정신에 드는 병은 약으로써 다스리지 못한다. 보살은 자비심에서 앓지만, 중생은 업(습관) 탓에 앓는다. 업이란 하루하루 익히는 생활 양식이다. 생각이나 음식을 비롯한 버릇이 건강도 병도 만든다."



현대불교자료사진

어떤 요소가 이 재난을 불러왔는지 새겨봐야 한다는 말씀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다면 중생 앓이를 벗어나 보살 앓이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집안이든 개개인이든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세상살이에 곤란 없으면 잘난 체하고 남이 어려운 줄 모른다. 근심거리를 회피하지 말고 숙제로 생각하라. 어려움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창의력, 의지력을 찾으라는 소식으로 새길 수 있다면 살아갈 만한 세상을 이룰 수 있다."

걱정과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힘을 갖추라는 말씀 바탕에서 우리가 어떤 결을 이뤄갈 수 있을지 새겨볼 일이다.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이뤄지면 쉽게 무너진다. 부실 공사라는 게 뭔가? 제대로 하지 않아 너무 쉽게 이루었기에 쉽게 무너지는 거다. 삶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때그때 면역을 갖추어야 한다. 일이 쉽게 되길 바라지 마라. 뜸을 들여야 한다. 많은 세월을 두고 기량이 커지고 그런 도량을 맡을 만한 자질이 갖춰진다. 아직은 내 그릇이 그런 도량을 당해낼 만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일이 뜻대로 된다면 교만해지고 안이해진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기보다 차근차근 제대로 풀어나가며 어떤 일이라도 견디고 아우를 수 있는 품을 키워야 한다.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오늘날 우리는 그저 입만 벌리면 경제 타령이다. 그러나 우리 삶은 경제만이 다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에 넘치는 과소비를 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오늘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일찍이 우리 그릇은 만들어놓지 않고 자꾸 욕심껏 뭘 담기만 하려고 했던 과보다. 그래서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하셨다."

스승은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그릇을 키우려면 눈앞 놓인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덕을 길러야 한다, 개체를 넘어서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꽃씨를 지니고 있다, 씨앗이 움트려면 흙 속에 묻혀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극락도 지옥도 아닌 사바세계, 참고 견딜만한 세상이라는데 살아가는 묘미가 있다며 일깨운다.

제 잇속 차리려고 마스크를 사재기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흔드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업 경영자와 나라 살림꾼, 정당 살림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스승은 "수많은 생명을 싣고 나르는 이들은 운행 기술뿐 아니라 정신 훈련도 함께하면 좋겠다.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에 부닥칠지 알 수 없어 높은 주의력과 순간 대처능력이 몸에 그림자처럼 따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력을 기르는 데는 명상이 지름길이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을 아우르는 책임자들에게는 명상 훈련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난기류로 공기가 희박해져 비행하던 항공기 고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순간 동요를 일으키는 에어 포켓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명상하라. 그 힘으로 삶을 다지라"하고 말씀했다.

아울러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낡은 문이 닫히면 새 문이 열리기 마련이다, 오늘 겪는 어려움을 재충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무한한 우리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며 북돋웠다.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고 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을 잃을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다가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고 만다.

코로나가 저토록 퍼진 데에는 빨라진 속도와 우리가 그토록 키우려고 몸부림쳐온 경제 탓이 크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을 겪은 김에 편리함을 좇는 데서 벗어나 불편을 기꺼이 견디도록 탈바꿈해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경제를 키우려는 데서 벗어나 덜 쓰고 덜 버리며, 있는 것을 고쳐 쓰고 살려 쓰는 버릇을 들여가며 긴 호흡으로 느릿느릿 살아야 한다. 이것이 스승이 오래도록 외쳐온 작고 적은 것에 기꺼워하는 삶이다.

〈법정 스님 눈길〉 저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대부 정신적 의지처 된 선종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⑤ 당사대부와 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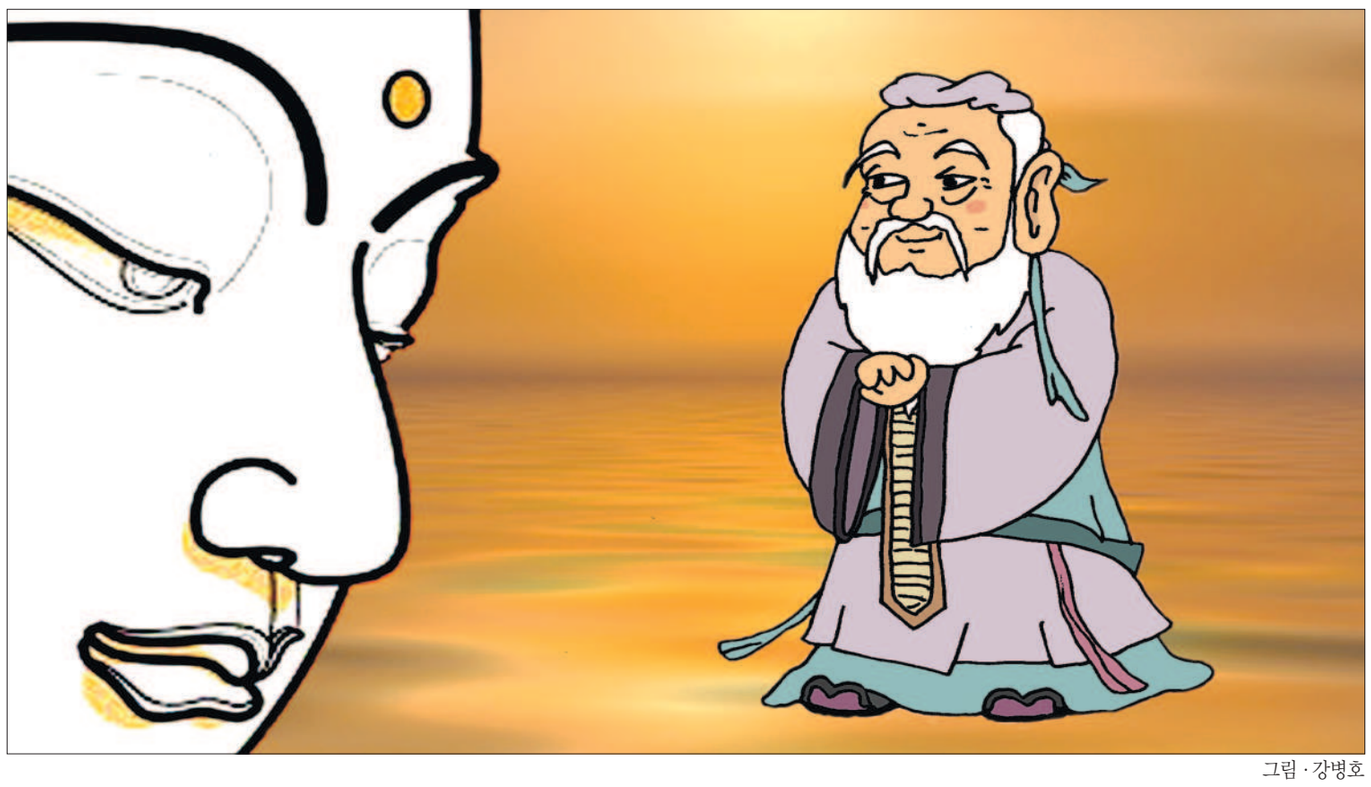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당대는 불교가 가장 흥성했던 시기로서 종파 또한 난립하였고 승려도 많았다. 불전은 천하에 유행하였고, 사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건립되었다. 당나라 중엽에 이르러서는 보편적으로 사대부 문인들은 불교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불교는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사유방식 및 심미적 추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가(詩歌) 예술에서 이들의 표현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떤 면에서 시인들은 선학의 초월적 세계관에 많은 영감과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후한시대 인도에서 유입된 중국불교는 동진 이래로 중국 전역에 유행되었다. 학식이 있는 사대부들은 불법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문인과 고승들 간의 교류가 유행하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문인 사대부는 당나라 사회의 엘리트(精英)들이었다. 곧 사회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주체들이었다. 불교문화의 발전은 당연히 문인사대부들의 참여가 아니고는 크게 전파 할 수 없었다. 아울러 사대부 문인들 간의 교류는 당대 불교문화를 전파하고 발전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황제들도 불교를 숭상하였다. 당대의 유원종이 말하기를 "옛적에 사문과 사대부들은 자주 교유를 하였다. 진송(晉宋)이래로, 도림(道林) 도안(道安)등과 교류를 했으며, 그들과 교류한 인사로서 사안석(謝安石), 왕일소(王逸少), 습착지(習鑿齒), 사영운(謝靈運), 포조(鮑照)등이 있다..., 진승법인(真乘法印)을 말미암아서 유가의 경전을 병용했으며 사람들은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당대 사대부가 불교를 숭상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총괄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당대 불교는 대부분 통치자의 지지와 선도가 있었다. 통치자가 불교를 장려하면서 당연히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사대부들은 통치자들과 영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사대부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승려들을 초청해 제단을 설치하고 의식을 베풀기도 했다.

두 번째, 사대부들이 과거시험공부를 위해서 사원에서 은거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불교문화에 빠져들게 되었다. '종남첩경(終南捷徑)' 이라는 고사가 생기게 된 동기도 불교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세 번째는 불교는 사대부들이 실의에 빠졌을 때 의지처가 되기도 했다. 이 점은 유가 전통문화의 보충이 되기도 한다. 유가의 근본 덕목 가운데 하나인 "뜻을 얻지 못했을 때 자기를 잘 관리해서 도덕적 수양을 쌓아야 하며, 뜻을 얻었을 때는 곧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익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예기 · 대학〉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사대부가 할 일을 적시하고 있다. 즉 "옛적의 성현들은 천하에 인품과 덕행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먼저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린 자는 먼저 그 집안과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집안과 가정을 잘 다스린 자는, 먼저 자신의 품성을 수양하고, 그 자신의 품성을 수양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의 뜻을 성실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가 지식을 획득해야하고, 지식을 획득 하는 방법(순서)을 알아서 만사만물의 이치를 연구해야 한다. 만사만물에 대해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아는 것을 통해서), 연구한 후에 비로소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며, 지식을 획득한 후에 생긴 견해가 비로소 진성(真誠)이다. 진정한 견해를 얻은 후에 비로소 마음이 단정해지며, 마음이 단정해 진후에 비로소 성품을 수양할 수 있다. 성품을 수양한 후에 비로소 가정과 가족을 잘 관리 할 수 있으며, 가정과 가족을 잘 관리한 후에 비로소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국가를 잘 다스릴 때 비로소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라고 하는 〈대학〉 '팔목(八目)' 의 핵심사상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역시 불교와 마찬가지로 유가에서도 개인의 수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수양이 완벽할 때 사회 국가에 대해서 봉사 헌신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천하가 태평해진다는 것이다. 유가의 이러한 사상은 불교의 사상과 매우 유사점이 있으며, 특히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과 매우 흡사하다. 즉 자신의 수행의 경계가 깊어졌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며, 선종의 심지법문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유가의 사상과 불교의 유사점이 존재했던 관계로 유교와 불교가 크게 부딪치지 않고 함께 상호 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발전해 올 수 있었다.

당 문인 사대부 불교에 심취
현실과 다른 선경에 매료돼
백거이 · 왕유 등 불교 신봉

네 번째, 선종이 문인에게 준 영향이다. 〈중국통사간편(中國通史簡編)〉에서 말하기를 "선종은 중국 사대부 입맛에 맞는 종교이다"고 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대부 관료들의 일상생활은 지극히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다고 하겠다.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언제 어떻게 정세가 변할 지 알 수 없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은 적군이 되기도 하는 미래를 예측 할 수 없는 현실도 그들에게는 지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떠나서 잠시나마 정신적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곳은 한적한 선종의 총림이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선사들과 교류를 했을 것이다, 고승들과의 교유를 통해서 복잡한 현실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선림속의 경계를 맛보았을 것이며, 아울러 선사들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현실세계와 전혀 다른 경계인 선경의 세계에 그들은 점점 매료되어 갔을 것이다.

당나라는 비록 도교를 숭상하였지만 불교도 그에 못지않게 번성하였다. 당대의 문인 사대부들도 불교를 신봉하는 이들이 많았다. 백거이는 자신을 향산거사라고 부르며 가족 모두에게 불교를 신봉하게 하면서 "비록 출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청정한 마음으로 집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상은(李商隱)도 역시 당대의 문인으로 지현(知玄)이라는 승려의 제자가 되어서 불교를 연구하기도 했으며, 고승과 교류를 하였던 표식이 되기도 한다. 이백도 역시 당시의 사조에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비록 도교에 흠뻑 빠져 자칭 '적선인(謫仙人)' 이라고 하면서 배정(裴政) 등과 조래산(徂徠山)에 은거하면서 "죽림육일(竹林六逸)"이라고 하면서 단약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도 역시 불교를 신봉하면서 많은 고승들과 교유하였고, 많은 가람을 유역하기도 했다. 자칭 "청련거사(青蓮居士)"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가 많은 사찰을 유람 하면서 남긴 시문으로 찬(贊) 송(頌) 명(銘) 서(序) 비문 등이 있다. 특히 현존하는 것으로 '로군엽화상찬(魯郡葉和尚贊)' 과 '숭명사불정존승다라니동송병서(崇明寺佛頂尊勝陀羅尼幢頌並序)' 가 전해지고 있다.

왕유 역시 당대의 유명한 시인이자 관료로서 자칭 '유마' 라고 하면서 불교를 돈독하게 믿었다. 당 중엽의 문단을 말할 때 시선(詩仙)은 이백, 시성(詩聖)은 두보(杜甫)라고 하는데, 왕유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시인이자 문인 화가였다. 그의 예술세계는 생전 및 사후에 후래인 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특한 그의 예술세계를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를 후래인들은 '시불(詩佛)' 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와 가족은 평생 불교를 신봉하였으며, 많은 고승들과 교유했다. 그의 모친은 북종의 신수 스님의 제자 대조선사(大照禪師)의 돈독한 재가 제자였다. 그도 일찍이 하택신회에게 귀의한 적이 있으며, 평생토록 불자로서 지켜야할 계율을 지키면서 살았다. 따라서 그의 인생관은 불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는 수연(隨緣) 임운하면서 불전에 복전을 구하지도, 오직 식심견성(識心見性)해서 자신과 현실 내지 사회의 모순을 극복 개선해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의 예술세계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다. 그는 육조혜능선사비(六祖慧能禪師碑)을 짓기도 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기도 했지만 장기간의 은거를 통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선기(禪機)는 물론이거니와 도교의 사상도 깊이 묻어나고 있다. 특히 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불교사상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 그는 신회선사의 교유로 인해서 그 예술창작 세계의 전환점이 되었다고도 하며, 육조 혜능의 비문을 쓰게 되는 동기도 하택신회의 부탁을 받고 썼다고 한다. 그가 말년에 지었다는 '오명간(鳥鳴澗)' 에서 "적정해서 사람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곳에 계화꽃은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떨어지고, 깊고 고요한 밤의 봄산은 광활하고 넓기만 하다. 그때에 달이 뜨니 산새조차 놀라고, 잠이 깬 새가 봄 계곡에서 지저귄다."고 하는 이 시는 뛰어난 그의 예술세계 및 인생을 달관한 경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유종원(柳宗元)도 일생동안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많은 선승들과 교유를 하였다. 그가 비록 불자였지만 사상의 기본적인 바탕은 유가였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그리 담박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일생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영정개혁(永貞革新)의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고문운동(古文運動)의 영수 역할이었다. 이 고문운동에는 한유와 함께 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유학을 부흥시키기 위한 운동이었으며 경세지용(經世致用)의 사상과 관계가 깊다. 그는 유가를 바탕으로 개혁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그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또 그는 비록 천태종에 귀의한 불제자로서 천태사상을 깊이 학습하였고, 천태종 스님들과 깊은 교유를 하기는 했지만,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통합유석(統合儒釋)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불교사상을 유교사상체계에 귀납시키고자 했다. 그는 정토신앙을 크게 선양하기도 했는데, 그의 정토신앙은 천태종 내용의 정토신앙이다. 본래 지자대사도 정토신앙을 추종하기도 했었다. 그는 "불도는 큰 포용력이 있으며, 무릇 마음은 물욕을 떠나서 세간의 어지러움을 제어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심정은 그가 개혁을 실패한 후에 좌천을 당해서 영주(永州)에 있을 때의 진실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개혁이 실패하고 영주(永州)에 좌천된 후에 정신적으로 큰 좌절을 맛보면서, 문학 및 서화를 통해서 자신의 울분을 감추면서, 시간이 날 때 낚시를 즐기면서 자신의 고결하고 도도한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다.

〈동국대 강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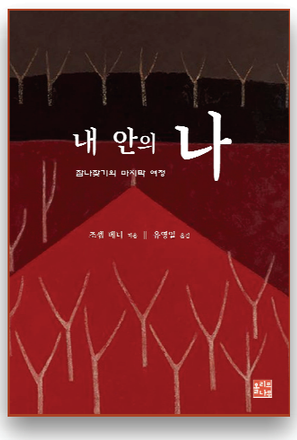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온 영성계의 클래식.
개체성을 넘어서자마자 참자아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내 안의 나
참나찾기의 마지막 여정

삶의 진실찾기 게임에 몰두하던 저자는 어느 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거룩한 존재'의 비밀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삶을 위한 생각활용법까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조셉 베너 / 유영일 옮김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세상 전체를 떠받드는 거룩한 사랑의 큰 손이
내 숨결보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아마존 독자 서평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내 실존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잘것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구족되는 활활발발한 인생은 곧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 위주의 의식 찌꺼기들은 어찌하여야 깨끗이 청소될 수 있을까? 나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올리브나무 010-7755-2261, 070-8274-1226
직접 주문 02) 2004-8253 010) 7755-2261
*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 왕조서 이어진 굳건한 佛心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⑤ 미얀마 뷰(Pyu)왕조

미얀마는 우리나라 근대기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식민지 시기 · 민주화운동이라는 비슷한 아픔을 극복했다.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시절, 미얀마 역사의 한 왕조가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다.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해줄 불교 유적의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도시가 전설로만 존재할 뻔했다. 하지만 현존하는 유물로 인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미얀마는 마지막 왕조인 꽁바웅(Konbaung) 왕조가 1886년에 영국에 점령당한 후 1948년 1월 4일에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 기간 중 영국의 한 역사학자가 미얀마 역사는 바간(Bagan)왕조부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인 '뷰(Pyu, B.C200~A.D900)' 왕조 시기는 미얀마 사람들 간 구전(口傳)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단정지은 후 미얀마 역사를 재편하려고 했다.

하지만 영국인 학자가 전설이라고 치부해버린 뷰 왕조 시기의 유적이 미얀마의 젖줄인 이라와디강(Irrawaddy River) 유역에서 대규모로 발굴되었다. 할린(Halin · 한링, 현재 Shewbo 인근 도시), 스리크세트라(SriKsetra · 따예킷따야, 현재 Prome 인근 도시), 베익타노(Beikthano · 베잇데노, 현재 Taungdwingyi)에서 대량의 뷰 왕조시기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뷰 왕조시기에 세운 고대도시의 흔적은 미얀마에 이른 시기부터 천 년 넘게 발전된 왕국이 존재했고, 수준 높은 불교문화유산과 서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무역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다.

뷰 왕국의 경제는 농업과 무역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뷰 왕국 농업의 일등공신은 '관개시설'이었다. 이 관개시설은 뷰 왕국이 자리를 잡았던 이라와디강 유역의 건조지대에 흔적이 남아 있다. 뷰 시기의 관개시설은 바간(Bagan) 왕조의 풍부한 농업 생산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간 왕조의 아노야타(Anawratha)왕이 미얀마 상부(上部)지역에 뷰 시기의 관개시설을 응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뷰 시기의 댐, 운하, 둑과 같은 건설적인 부분도 바간 왕조를 비롯하여 다른 미얀마 왕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뷰 왕국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와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중간 지점이었다. 중국 최초의 국제 교통선이라 불리는 남방 실크로드에서 미얀마 뷰 왕국을 찾을 수 있었다. 어쩌면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속에서 미얀마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과거의 역사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뷰 왕국은 중국 역사 기록에 '표국(驃國)'이라고 불린다. 뷰 왕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당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도 맺었다. 뷰 왕국은 801년 당나라로 사절단과 함께 35명의 음악가들을 보내기도 했다. 사절단이 파견될 시기에 뷰 왕국은 금전(金錢)과 은전(銀錢)을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유물로 발견된 것은 은전뿐이다.

뷰 왕국은 인도에서 해상을 통해서 불교와 힌두교를 받아들였다. 인접한 인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뷰 왕국만의 문화로 승화시켜 재창조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했다. 처음에는 힌두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도시 이름에 힌두교와 관련된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 현재 대표적인 뷰 시기의 도시로 꼽히는 '베익타노'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다. '베익타노'라는 뜻은 '비슈누(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의 도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붓다고사(Buddhaghosa)의 영향으로 5세기경 대부분 뷰 왕국 사람들은 불자(佛者)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뷰 왕국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로우며, 7세에서 20세가 되는 남성은 절에 가서 승려 생활을 한 것이 당나라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뷰 왕국에는 테라와다(Theravāda) 불교의 영향뿐만 아니라 마하야나(Mahāyāna) 불교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뷰 시기의 불교 유적을 통해 밝혀졌다.

뷰 시기의 불상의 이미지는 청동 · 돌 · 금 · 은으로 만들어졌다. 여러 가지 수인(手印)과 자세를 통해 다양한 불상을 표현했다. 주로 출토되는 불상의 수인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왼손은 무릎 위에,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펴서 땅을 가리키는 손의 형태)이다. 대승불교의 특징이 드러난 보살상은 할린과 스리크세트라에서 발견되었지만 주로 스리크세트라 도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 보살상은 미얀마에서 주로 출토되는 불상과는 다르게 보관(寶冠)을 쓰거나 두건을 둘렀으며, 목과 가슴 그리고 팔에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는 보살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불보살상과 황금 관세음보살상도 출토되었다.

뷰 왕조는 인도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과학과 천문학적 지식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뷰 왕조는 천문학이 발달했다. 뷰 시기의 달력은 불교 달력을 기반으로 했다. 두 개의 달력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하나는 여전히 현재 미얀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 달력의 첫 날은 638년 3월 22일에 시작한다. 뷰 왕국은 과학과 천문학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언어의 영향도 받았다.

단순히 언어를 차용하기보다는 창조의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갖췄다. 또한 중국 역사서에 따르면 뷰 시기의 음악가들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노래를 불렀다. 뷰 시기의 중요한 비문에는 산스크리트어, 빨리어 그리고 뷰어가 기록되어 있다. 많은 공예품에도 뷰 문자를 새겼다. 뷰 왕국의 언어는 바간 왕조시대까지 사어(死語)가 되지 않고 꾸준히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바간 왕조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간의 '먀쎄디(Mya Zedi) 파고다'에 있는 라자꾸마라(Raja kumar) 비문 내용은 미얀마(Myanmar) · 빨리(Pali) · 몬(Mon) · 뷰(Pyu)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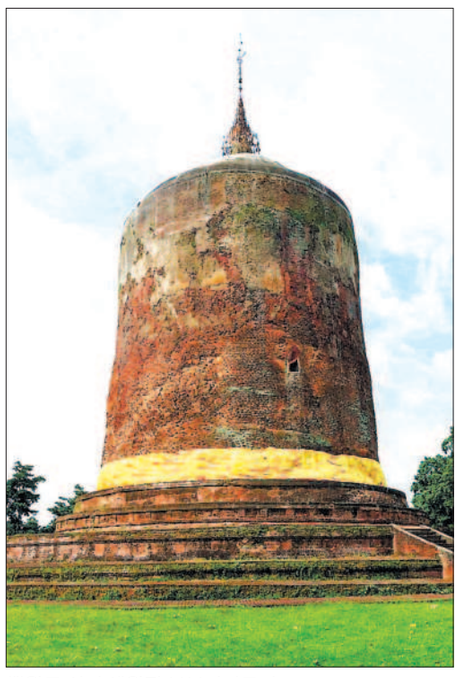
또한 많은 탑과 사원을 건립했는데 이 양식이 훗날 바간 왕조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바간 왕조의 쉐지곤 파고다와 같은 걸작이 탄생되었다. 뷰 시기의 불교 건축물은 목재 건축 공법에서 발전하여 벽돌을 사용한 건축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왕실의 많은 도움으로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다.

왕족뿐만 아니라 뷰 왕국의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불교신자였다. 그리고 학승(學僧)들이 중심이 되는 승가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뷰 왕국은 불교 도시를 기반으로 삼아 약 천 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다. 남방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뷰 왕국의 지리적 여건은 법(法)을 전달하기 위한 승가의 담마(Dhamma)로드가 되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부처님의 법을 전달할 수 있었다.

뷰 왕조시기의 고대도시는 불교로 인해 독자적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변화를 맞이했다. 영국의 한 역사학자의 잘못된 학설로 인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뷰 왕조의 고대도시 전설은 현존하는 불교 유적을 통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았다. 201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간보다 5년 빠르게 첫 번째 미얀마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미얀마는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지만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기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다. 약 2000년 전 중국에서 인도를 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었던 뷰 왕국에서 현재 미얀마의 비전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남방 실크로드의 과거가 현존하는 뷰 왕국의 여행을 올해의 버킷리스트에 올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양곤대 박사과정〉



뷰왕조 시기 세워진 보보지파고다.



뷰왕조의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벽돌건축.



뷰왕조 시기에 조성된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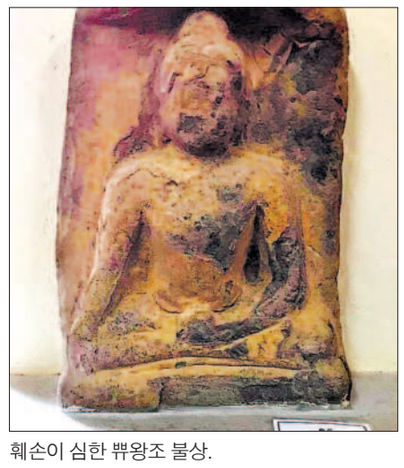
2세기부터 9세기까지 존재해
해상으로 불교 · 힌두교 유입
5세기경 붓다고사 영향 받아
왕족 비롯한 국민 불교 귀의
후대 바간 왕조에 영향 미쳐
고대 도시들, 세계유산 등재



뷰왕조 고대도시였던 할린지역. 이곳과 스리크세트라, 베익타노지역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뷰왕조 지역서 발굴된 비문.



훼손이 심한 뷰왕조 불상.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근기에 맞는 지도 방편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⑩ 사료간(四料揀 · 네 가지로 시험하다)

"어떤 때는 사람만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경계만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아니한다.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고, 어떤 때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느니라."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만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따뜻한 봄날, 땅이 비단이 깔린 듯하고 어린아이의 늘어진 머리카락이 명주실처럼 하얗다."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경계만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왕의 법령이 천하에 두루 잘 시행되고 장수와 군대는 요새 밖에서 전쟁을 끝냈도다."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 둘 다 빼앗는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병주(幷州)와 분주(汾州)는 소식이 끊어져서 홀로 한 지방에 있느니라."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왕이 궁전에 오르니 시골 노인이 태평가를 부르니라."

임제가 선수행자를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설한 네 가지 시험 방법을 '4료간(四料揀)'이라 한다. 사람과 경계를 빼앗고 빼앗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하는 상대자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방법이다. 료간(料揀)이란 잘 헤아려 중요한 핵심을 분간해 낸다는 뜻이다. 동산양개(洞山良介)의 오위설(五位說)과 함께 선가에서 학인을 제접(提接)하는 데 쓰던 특별한 수단이다. 빼앗는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뜻이고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하는 것이다. 사람과 경계는 곧 주관과 객관을 말한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서는 4료간에 대하여 근기(根機)에 따라 사람을 빼앗고 경계를 빼앗지 않는 것은 하근기를 대하는 방법이고, 경계를 빼앗고 사람을 빼앗지 않는 것은 중근기를 대하는 방법이며,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는 것은 상근기를 대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과 경계를 모두 빼앗지 않는 것은 격식(格式)을 뛰어넘은 출격인(出格人)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구분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결국 근기의 차이에 따라 4료간이 시설되었다는 것이다.

선의 궁극적인 경지는 주객이 끊어진 경지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은 언제나 주객이 상대하면서 그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관념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럴 때는 진정한 입선(入禪)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곧 무념(無念)이나 무심(無心)의 상태가 되지 못하면 사람이 경계를 따라가고 경계가 사람을 자극하게 되어 분별이나 망상을 일으키면서 경계에 나타난 대상에 집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돈오(頓悟)를 내세운 남종선에서는 무념(無念)을 종지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육조단경〉에서도 무념을 강조하면서 무념으로 종을 삼는다는 말이 나온다. 또 육조의 제자 화택신회는 무념이라는 말 대신에 부작의(部作意)라는 말을 썼는데 억지로 생각을 지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달마가 중시한 〈능가경〉에는 "부처님이 법을 가르칠 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我教授法時 心不起)"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도 또한 무념 혹은 무심으로 법을 설한다는 뜻이다. 또 달마(達磨)는 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도 하였다.

"선이란 산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니, 움직임도 없고 망념도 없는 무념을 선정이라 한다(禪爲亂心不起 無動無念爲禪定)" 하였다.

점수(漸修)를 주장한 북종선에서는 무념이라는 말 대신에 이념(離念)이라는 말을 썼는데 무념처럼 단도직입적인 말이 아니라 망념을 여의는 과정을 두고 있는 점수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시중(示衆)은 상당(上堂)과 마찬가지로 종사가 대중에게 종지를 드러내 보이는 법문인데, 상당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는 법문이라면, 시중은 그런 조건이 없이 일반적인 법문을 넓게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이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하는 법문이다. 만참(晩參)은 저녁때 하는 법문이다.

〈조계종 고시원장〉

부처님만의 18불공법



세상 속 경전읽기

⑩ 반딧불이와 해오름

어렸을 때, 한여름 밤에 반짝반짝 노란 빛을 발(發)하며,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던 반딧불이를 신기해하며 쫓아다니던 기억이 있다. 반딧불이(螢火蟲)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반딧불(螢火, 螢光)은 암놈은 한 줄, 수놈은 두 줄의 빛을 발해 서로 짝을 찾는다고 한다.

4세기 경 중국 동진(東晉)의 차윤(車胤)이란 사람은 가난해서 등잔 기름을 구할 수 없어, 여름이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흰 명주주머니(練囊, 잿물에 담가서 아교질을 없애 희고 광택이 나게 만든 명주실로 짠 주머니)에 담아 그 빛으로 밤을 새우며 책을 읽어 마침내 벼슬길에 올랐다. 비슷한 시기에, 겨울밤 백설(白雪)에 비추어 책을 읽어 벼슬길에 오른 손강(孫康)의 예와 합쳐 형설지공(螢雪之功, 가난한 사람이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함)이라는 고사(故事)가 생겼다.

근래에는 환경이 오염되어 반딧불이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졌다. 이에 1982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무주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었고, 그후 그 지역의 반딧불이 개체수가 급감함에 따라, 2002년 1월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이 무주읍 가옥리, 설천면 장덕리, 무풍면 금평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에, 반딧불이의 비유가 나온다. 성문과 연각 이승(二乘)이 스스로의 몸도 다 비추지 못하는 반딧불과 같이 미미한 빛이라면, 보살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온누리(우리가 사는 남섬부주)를 남김없이 비추는 무량한 광명이다.

"반딧불이(螢火蟲)가 '내 능력으로 능히 염부제(4대주 중 남섬부주)를 비추어 두루 크게 밝히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는 것처럼, 모든 성문과 연각 또한 '우리들이 육바라밀을 닦고 18불공법(不共法)을 닦아서 무상정등정각을 얻고, 무량한 아승지 중생을 제도 해탈시켜 열반을 얻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 사리불이여! 해가 뜰 때 광명이 염부제를 두루 비추어 어둠을 밝히지 못하는 곳이 없듯이, 보살마하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육바라밀과 18불공법을 닦아 무상정등정각을 얻고, 무량한 아승지 중생을 제도 해탈시켜 열반을 얻도록 한다."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222b05-13〉

우리 속담에 "개똥불로 별을 대적한다"는 말이 있다. 반딧불은 별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빛인데, 하물며 별빛을 덮어버리는 태양광과의 비교는 언감생심이다. 여기에서 18불공법은 붓다만이 갖추고 있는 열여덟 가지 특징이다.

"이른바 18불공법이란 어떤 것인가. 1)~3) 모든 붓다께서 몸, 입, 생각으로 짓는 것에 허물이 없음(身 · 口 · 念無失). 4) 모든 중생에 대해 평등한 마음(無異想). 5) 적정(寂定)한 마음(無不定心). 6)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품는 마음(無不知已捨心). 7) 중생구제의 원력에 퇴보 없음(欲無減). 8) 수행에 퇴보 없음(精進無減). 9) 알아차림에 퇴보 없음(念無減). 10) 중생구제의 지혜가 쇠퇴치 않음(慧無減). 11) 해탈에서 속박으로 퇴보치 않음(解脫無減). 12) 해탈지견에 퇴보 없음(解脫知見無減). 13)~15) 모든 행위 · 말 · 생각에 지혜를 수반함(一切身 · 口 · 意業隨智慧行). 16)~18) 과거 · 미래 · 현재세의 모든 것을 알아 막힘이 없음이다"

〈摩訶般若波羅蜜經 T0223_.08.0255c25-0256a05〉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㊺ 이해의 길 36

모두가 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가수 나훈아가 부른 '잡초'라는 노래다. 사람들은 장미나 백합, 벚꽃 등은 좋아하지만, 잡초는 다른 꽃들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해서 뽑아내곤 한다. 이 잡풀은 기억해주는 이도 없다. 가수는 어쩌면 그 모습이 안쓰러워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닐까. 그러나 화엄의 세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곳에서는 잡초도 장미와 조금의 차별도 없이 아름다운 꽃으로 대접받기 때문이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불성(佛性)이 실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화엄의 시선이다.

화엄종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다. 화엄(華嚴)이란 글자 그대로 온갖 꽃(華)으로 장엄한다(嚴)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파라다이스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계는 불성이 실현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화엄의 용어로 불성현기(佛性現起), 줄여서 흔히 성기(性起)라고 한다. 성기는 불성(性)을 갖추고(具) 있다는 천태종의 성구(性具)와 대비되는 말이다. 이는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있다. 이미 모두가 불성이 실현된 부처인 것이다.

화엄의 시선에서 장미는 아름답고 잡초는 보잘 것 없다는 생각은 그저 인간의 헛된 주관에 불과할 뿐이다. 장미 부처, 잡초 부처, 잘 생긴 부처, 대머리 부처, 노동자 부처 등 모든 존재는 부처로서 평등하다는 것이 화엄에 비친 세계의 참 모습(實相)이다. 우리는 등산을 하다가 뱀을 만나면 놀라곤 하는데, 이 또한 주관적인 편견이자 왜곡일 뿐이다. 뱀은 그저 그렇게(如如) 생긴 것뿐인데, 인간의 주관이 뱀에게 '징그럽다'는 이미지를 덮어씌웠기 때문이다. 화엄은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실상 뱀이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징그러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는 생각 역시 화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가장 철학적인 경전이라고 평가 받는 〈화엄경〉은 60권, 혹은 80권의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이 사변적인 화엄종이 중국에서는 두순(杜順, 557~640)과 지엄(智儼, 602~668)을 거쳐 3조인 법장(法藏, 643~712)에 이르러 활짝 꽃을 피운다. 천태종이 남북조에서 수나라에 이르는 혼란의 시기에 유행했다면, 화엄종은 당나라로 통일된 이후 유행한다. 통일된 나라에서 승자가 패자를 향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니 함께 하자고 설득하기에 화엄이 제격이었던 것이다. 잡초든 장미든 모두 '하나'임을 강조하는 화엄의 이상주의는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 이후 화엄이 유행한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패자를 품기 위한 목적으로 의상 대사를 앞세워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화엄10찰(刹)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화엄은 중앙권력이 무너지고 혼돈의 상황이 다가오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철학이다. 혼란의 시기에는 이상보다 고통스런 현실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다. 화엄과 천태가 이상과 현실이라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천태가 불성에서 지옥을 그리고 있다면, 화엄은 지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허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치 잔뜩 술에 취해 걷다가 전봇대에 이마를 부딪치면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별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술이 깨면 저절로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허상이라는 술에서 깨어나면 지옥은 없고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세상은 아름답다'는 말은 이때 나오는 탄성이다.

화엄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를,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품고자 하는 철학이다. 비록 화엄이 메이저와 다수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기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이 점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 화엄에는 소외되고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가 화엄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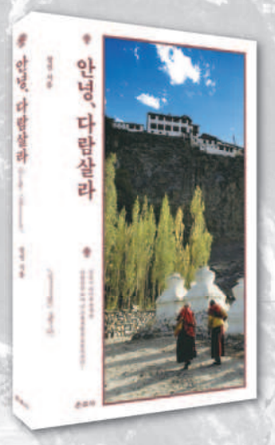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84호 | 17 | 전면광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연꽃 같은 존재임을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관무량수불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찰행사전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인연을 찾습니다
정토마을을 함께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위치 : 경남 창영, 대지 : 453평
●사찰등기 해드릴수 있습니다.
심우사
010-3753-7844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황토장뚜껑 지점모집
• 기후변화에도 장맛을 지켜줌
• 뚜껑을 열지않고 볼수 있습니다
• 과학적 설계 가운데 유리가 부착
3종류 각 300개씩, 선불 30일후 배송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 사본
♣ 치유농장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문의 043-745-333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영통 기도법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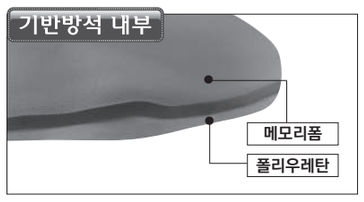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비구 · 비구니스님 종도모집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주민등록등본 1통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그곳에 가서 빌면 원하는대로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위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P.785에 있는 국가 기록 문서입니다. 이 사실을 2019년에 발견하여 우선 컨테이너기도실로 마련하였아오니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 성취 소원의 꿈을 이루십시오.
기도터 관련 자세한 소개 30쪽 책자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책값은 우편료 포함 만원입니다.
입금계좌: 우체국 611038-02-004763 농협 352-0943-7979-03 정보석
안내: 010-3557-2773, 010-2093-3385
여의 기도 대성지 도량 건립 발원자 드림

남(男)·여(女)관계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영통도사 명진 -
010-4912-3544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화제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돈이 좋아하고, 따르는 속옷이 있습니다"
붉은악마(치우천왕)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4강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치우천왕 유래에 따르면 그 옛날 '전염병'이 도질때 우리조상들은 '장승'의 모양으로 마을어귀에 세워 전염병을 막게 하였다.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평생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걱정이다. 좋은 운이 따르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을 비법으로 꼭 입으시어 나와 내 가족이 나쁜 운을 만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돈도 들어오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사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우천왕 빨간속옷 2장 ~~10만원~~ ⇨ 5만원
Daum 카페에서 치우천왕 정담 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상담전화 010-4500-8234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대구, 60세 이상)
• • •
010-3524-8930

• • •
사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중국교포 환영)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 • •
010-4253-9110

• • •
통영 한산사
사찰 운영 및 양도하실
[조계종]스님 모십니다.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694-1
• • •
055-649-7077
010-3840-8277

• • •
부산 도심 산에있는 암자입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010-2168-28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20년 3월 10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84호 | 18 | 전면광고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안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창건 24년, 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 포함
- 위치 : 부산 신평 토지 5천여평
- 주거지역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포함

010-9906-3631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부산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지하철 1호선 범일역 입구,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 귀금속골목 입구(상권최고)
- 법당완비, 에어컨 주방시설 완비, 상담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9660-667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 농지500평. 건평 30평. 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 최고요지, 지하철 5분~10분거리
- 뒤에는 산,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
- 대지 : 100평 사용중, 74평 허가득
- 건물 : 법당30평, 방1, 창고2, 화장실2, 요사채 30평, 방2, 다용도실1, 샤워실1, 창고1
- 가액 : 3억 3천 성업중(가격절충)

010-6565-2042

포교원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19평. 공양간. 방1개. 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 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무료

010-3422-3232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용동
- 대지 100평
- 법당 20평(2층)
- 1층 28평, 방3개, 화장실
- 가액 : 2억 3천만원

019-8611- 756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권리금 : 6천만원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북구 신협~농협중간 상가아파트 밀집 ● 건물 : 단독사용 2층 60평(옥상전체)주차장운영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소불200불, 법고大1, 小1 ● 종무행정실, 객실, 편백황토방, 명상힐링수련실 ● 시설 : 냉난방 및 실내외 주차장 보안시설 ● 교통 : 열차, 지하철, 버스, 공항(5~10분)거리 ● 전세 2천/30만 시설 답사후 절충(현재 법회중)

010-4535-2568

포교원할분

- 위치 : 서울 강서구 목동 사거리 남부시장옆
- 2층 20평 주방시설 완비
- 보증금 5백만원 / 월 50만원
- (특이사항)건물주의 협조가 있습니다

010-5381-1419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절앞에는 소나무숲 공원, 절옆에는 바닷가(해수욕장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 원만, 바닷가 앞까지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시세는 평당1천2백만원
- 등기평수 33평, 실평수50평정도
- 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 : 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010-2104-1717

좋은사찰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10-4586-4525

◑ 입종안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주사 · 백양사 주지후보 확정

법주사 정도 · 백양사 무공 스님



정도 스님



무공 스님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후보에 정도 스님과 무공 스님이 각각 당선됐다.

먼저 제5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 법주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현 주지 법주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314명 중 256명이 참석했으며, 정도 스님은 173표를 얻어 77표를 얻은 노현 스님을 제치고 주지후보로 당선됐다. 무효표는 3표.

정도 스님은 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과 1979년 각각 법주사와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충주 창룡사 주지 및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2016년 3월부터 법주사 주지와 충북불교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제18교구 선관위는 3월 3일 일주문 옆 주차장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무공 스님을 주지후보자로 확정했다.

무공 스님은 "그동안 중단된 고불선원을 복원하고, 염불원, 율원, 강원 등을 정상화시켜 문도스님의 여망에 따라 고불총림을 복원하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백양사에서 암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승가대학과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백양사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윤호섭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원 보직 인사발령

◈ **승진**

부속기관장 △대학미디어센터장 이경식

실 · 팀장 △재무팀장 겸 산학회계팀장 이혁준 △문과대학 · 이과대학 학사운영실장 박선희 △역량개발센터장 유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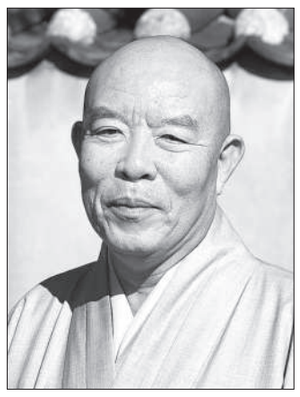
◈ **전보**

△글로벌교류팀장 이연주 △산학지원실장 조순식 △사회과학대학(행정대학원) · 경찰사법대학(경찰사법대학원) 학사운영실장 문상국 △글로벌입학팀장 겸 글로벌인재지원팀장 원충희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 언론정보/국제정보보호대학원 학사운영실장 최기석 △예술대학(문화예술대학원) · 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장 겸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행정팀장 김봉주 △입학관리실장 겸 입학사정관실장 김진환 △BMC산학협력팀장 김병호 △연구기획실장 변승재 △창업진흥센터장 신하균 △산학기획실장 겸 산학감사팀장 유광호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행정지원실장 겸 AT행정팀장 박혁상

보광 前동대 총장 '청조근정훈장'

33년 이상 교육자로 불교연구 · 대학발전 이끌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제18대 총장을 역임한 보광 스님<사진>이 정부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청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청조근정훈장은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중 총장 경력자를 특별추천 받아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포상이다.

보광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에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후진양성과 대승불교 전반에 걸쳐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으며, 특히 불교학자로서 '용성선사 연구', '신라정토사상연구' 등 정토학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

1999년부터 국제전자불전협회 한국지부장 및 국제공동회장으로 불전전산화 사업을 추진, 불교경전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 · 전산화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모교인 동국대 제18대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외평가 상승 및 대형 국책과제 수주, 600여억 원의 기부금 모금과 등록금 외 수입확충을 통해 건실한 대학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오랜 기간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양한 인권을 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총장취임하면서 인권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에 인권센터를 신설하였고, 대학원생 지도교수 자유선택제 시행과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 등 대학의 인권친화적 문화조성에 기여했다.

이밖에 지난 2월 말 퇴직한 동국대 교원 중 장태무 교수(홍조근정훈장), 김선정 교수(녹조근정훈장), 권동희 교수 (옥조근정훈장), 전영일 교수(근정포장), 유국현 교수(대통령표창), 민창식 교수(대통령표창), 강춘애 교수(교육부장관표창) 등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전북 주요 봉축행사 일정 확정

4월 4일 봉축기원탑 점등부터
행복바라미 · 합창제 등 이어져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올해 주요 봉축행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성우 · 진성)는 2월 29일 전주 수현사 2층 교육실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동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지홍 스님, 총지종 지정정사를 비롯한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대표, 전주 · 완주 지역 사찰 주지스님, 이근재 전라북도 불교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각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봉축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일정과 약 1억여 원의 예산안을 검토했다.

전북봉축위는 봉축기간을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도내 각 지역에서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봉축행사는 4월 4일 전주역 앞 마중길 봉축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막을 연다. 5월 12일 전북어린이 큰잔치, 임실 6탄약창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이 각 지역에서 열리고, 4월 25일에는 전북도청 광장에서 행복바라미 축제와 전라북도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등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전북지역의 각 도시 주요도로에 봉축연등을 설치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전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로 봉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역 앞 봉축기원탑과 별도로 전라북도 도청 광장에는 대형 8각 봉축탑을 설치하기로 했다.

불교문화행사로는 전주 수현사 큰법당에서 불교합창제, 덕진공원에서 어린이잔치,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전북 주요도시에서는 시차를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연등축제가 봉행된다. 또한 각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와 전북경찰청 전의경을 위한 위문법회, 교도소 방문 등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축행사도 열린다.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는 이외에 전주시의 청년신용불량자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신용회복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전국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올해 봉축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통해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봉축위는 이번 봉축행사 일정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추이를 지켜보며, 각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여비고 영인본 2점 기증

소장자 장윤석 씨, 조계종 총무원에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보물 제15%호 동여비고(東輿備攷) 소장자 장윤석 씨에게 영인본 2점을을 기증받았다.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신도인 장 씨는 "사찰과 관련된 명칭이 다수 수록돼 있는 만큼 불교계에서 좋은 곳에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중앙신도회 희망등 캠페인

희망등 만들기 키트 240개 대의원에 전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2020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등 나눔캠페인' 참여 안내문과 희망등 만들기 키트 240개를 2월 28일 전체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신도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찰 출입은 물론 여러 신행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가정에서 직접 정성을 담아 연등을 만들며 우리 이웃을 위로하고 극복하자"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선별보건소 마스크 전달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청도 · 경산 보건소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현중)는 3월 5일 청도와 경산 선별보건소에 마스크, 멸균장갑, 손세정제 등 9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음을 냈다"며 "의료진과 지역 주민들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분노 인내의 결실 '자유'



명상書 톺아보기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

〈5〉 내성의 인내

자신과 친구들에게는 원치 않네.
고통과 경멸,
거친 말들과 불명예를.
적에게는 반대라네.

– 〈입보리행론〉 '인욕품' 11

분노가 무엇인지, 그 것이 상처와 고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억하라. 놀라운 점은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 불편, 당혹을 주는 일들이 내가 적으로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때는 나를 기쁘게 한다는 점이다. 내가 원치않는 바로 그 고통을 나는 적들이 겪기를 바란다.

행복의 원인은 가끔 생기고
고통의 원인은 아주 많네.
그러나 고통 없이는 초월도 없다네.
그러니 내 마음이여, 그대는 용감해야 하네!

– 〈입보리행론〉 '인욕품' 12

행복하기 보다는 고통 느끼기가 훨씬 쉽다. 행복의 원인 보다 고통의 원인이 더 풍부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보다 풍부한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의 일반적인 원인을 행복의 원인으로 전환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고통에 대한 경험을 활용해서 초월적인 마음, 자유로 향한 마음, 믿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피상적인 쾌락을 포기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그러면 고통의 풍부한 원인들은 당신에게 행복의 풍부한 원인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참아내는 인내심과 내성의 힘을 강화하는 고통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당신을 자유로 이끌고 행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고 니체가 말했다. 보디빌더들도 "고통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고해자와 스스로 채찍질하는 자는 무의미하게
자상과 화상의 감각을 찾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여,
그대는 왜 자유를 위한 고통을 두려워하는가?

– 〈입보리행론〉 '인욕품' 13

당신은 고통을 통해서 덧없는 쾌락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고통을 구하는 것은 초월적인 무집착을 기르고 덧없는 쾌락의 포기를 길러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이다. 종교적인 광신자, 마조히스트, 공허한 육체 숭배자들은 전적으로 허황된 목표를 이루려고 고통에 대한 저항을 엄청나게 기른다.

당신은 이런 점을 언급함으로써 스스로를 독려한다. 만약 그들이 불충분한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초월적인 내성은 일체의 고통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유일하게 영속적인 행복을 의미한다.

부단한 수련을 통해
참기 쉬워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작은 고통으로 수련함으로써
큰 고통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하네.

– 〈입보리행론〉 '인욕품' 14

점진적으로 내성을 기르는 것은 정말로 효과가 있다. 이 것은 세속적인 목적에서든 초월적인 목적에서든 모든 심신 수련에서 볼 수 있다.

그 것은 일상에서는 상식이다. 가려운 곳을 긁는 것보다는 치료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취약하고 무상한 삶을 이루는 물질적 원소들에서 일어나는 불편, 그리고 자연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편에 짜증내며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들이 분노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비를 증오하고 바람에 고함치고 우리가 걸리는 이런 저런 질병에 격노하며 몸부림치고 갖가지 공격이나 사고로 괴로워하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신, 운명, 붓다 혹은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른다.

좌절이 분노의 폭발 이어져
분노도 중독의 또 다른 변종
내적 내성 경지높여 자유를

그러나 뭣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가? 분노 반응은 물질적 원소들에, 그리고 자연이나 어떠한 신성한 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것은 단지 외면적 고통과 압박에 내면적 고통과 스트레스만 더할 뿐이다.

어떤 이들은 더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되네.
자신의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
다른 이들은 현기증을 느끼고 기절까지 하네.
남이 피흘리는 것만 보아도.

– 〈입보리행론〉 '인욕품' 7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속박과 고통 속에서도 용감하고 영웅적인데,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굴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용감한 자를 존경하고 벌벌 떠는 자를 경멸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니 당신도 용기를 기르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현자는 고통을 겪더라도
마음이 흐려지거나 동요되지 않네.
여러 중독과의 전쟁에서
싸움은 많은 해를 가져오네.

– 〈입보리행론〉 '인욕품' 19

어쨌든 당신은 악과 중독과 싸우는 중이고 여기서는 특히 분노라는 중독과 싸우고 있다. 그러한 커다란 갈등에서 몇 번의 심각한 타격도 없이 이기리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노는 당신을 이용해서 통렬한 타격을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날린다.

당신이 분노로 향하게 되면, 분노도 당신으로 향해 올 것임을 예상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은 분노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강화시켜야 한다. 분노가 당신으로 향하게 될 때, 그 것은 당신이 고통받기를 원한다. 만약 고통에 대해서 성내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적인 것으로 보아서 참아내기를 배웠다면, 당신은 분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 것에 대한 방어는 탄탄하게 되어 있다. 분노는 당신을 이길 수도 없고, 분노하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위대한 인내, 위대한 내적 내성의 경지 안에서 자유로 향하는 길을 찾는다.

참으로 승리하는 영웅들은
모든 고통을 무시하고
분노와 같은 적들을 정복하네.
나머지 사람들은 시체를 죽일 뿐이네.

– 〈입보리행론〉 '인욕품' 20

분노라는 적과 싸우는 영웅은 전장의 영웅적 행위에 비유된다. 분노와 그 외의 다른 중독들은 참으로 훌륭한 적들이다. 그 적들을 패배시키면 진실로 훌륭한 결실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분노 등의 중독과의 싸움에서 어떠한 고통을 겪든지, 그 고통을 무시할 때에만 그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때 당신은 참된 영웅적 행위, 즉 죽음도 넘어서고 일상의 자기 중심적인 삶도 넘어서는 영웅적 행위를 보인다. 다른 중생과 싸우고 그들을 죽이는 세속의 영웅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분노에서 얻는다. 그들은 분노의 앞잡이가 되어서 스스로 분노의 도구일 뿐인 적의 몸, 즉 좀비와 같은 몸을 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신에 맞서 그들을 전장으로 몰아간 그들의 분노는 이미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빼앗아 버린 것이고, 당신의 분노도 그 분노가 내세우는 대의를 위해서 당신을 좀비처럼 만든다.

당신은 시체들을 죽이는 영웅의 시체일 뿐이다. 당신과 상대방 둘 다 진정한 적인 분노에 패배당한 것이다.

더욱이 고통에도 이익이 있으니
실컷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만을 쫓아내고
윤회하는 중생에 대한 자비를 북돋아 주네.
악을 피하고 덕을 사랑하게 만드네

– 〈입보리행론〉'인욕품' 21

당신은 이제 인내의 첫 단계에 굳건히 서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의식적 고통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고통을 참으면서 고통을 초월적인 자유에로의 박차로서 이용하는 것을 배운다.

인내를 위한 투쟁, 주로 분노를 정복하기 위한 그 투쟁에서 당신은 자만과 오만에 맞서서 고통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중독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다른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한 자비를 기르며, 그들도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를 기르게 된다.

이 글은 로버트 A.F 서먼의 〈분노〉(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행 스님

알려는 마음을 쉬고 그 알려고 하는 마음을 지켜보라

어떻게 해야 공한 이치 깨달을 수 있나요

질문 : 요즘은 정말 언제 어떻게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사 없는 공한 이치를 깨달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몸 벗기 전에 정신 차려 이 마음 도리를 알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답변 : 어떻게 해야 사람이 깨닫는가. 그런데 깨닫기 이전에 모두 살아나가면서 극하게 욕심을 부리고, 극하게 집착을 가지고, 아주 극히 그 모든 사물에도 그냥 그 많은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 사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극히 그 욕심 안 내는 것만치 다 갈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여러분께서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집안이 안되고 요새 경제 가 안 돌아가서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눈물을 흘리고 여러 가지죠. 가지가지죠, 뭐. 어떻게 고것뿐이겠습니까.

새록새록 너무나 천차만별로 많은 그 뜻을 제가끔들 이렇게 움켜쥐고 사시는데 그 움켜진 것을 그냥 놓고 사세요. 그걸로 인해서 내일 죽는다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거를 겁내지 않는다면, 나를, 죽는 거를 겁내지 않고 버린다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죽을까 봐 겁을 내니까 이게 그 겁내는 그 반면에 모든 게 틀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겁을 내지 않는다면, 겁내지 않고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한다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겁내지 않고 사시는 방법을 수 해를 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입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산을 한 것처럼 모두 여러분들을 지금 스님네들과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 땅에 앉아서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태연하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고, 물도 건널 수 있고, 어떠한 마구니 틈에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가면 가는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길은, 마음공부다 이러는 이 길은 참 무척, 그 길이 대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좁고 아주 엉망으로 된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에 어떠한 것이 닥치더라도 다 치우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림을 하고 모두 살고 계신데 이 공부 한다고 그것은 등한시하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나중에 그걸 또 해야 되니까 내 앞에 닥친 거는 누구한테 밀지 말고 꼭 여러분 자신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 그 길이 어지반 어지반 다 당도해서 갈 때가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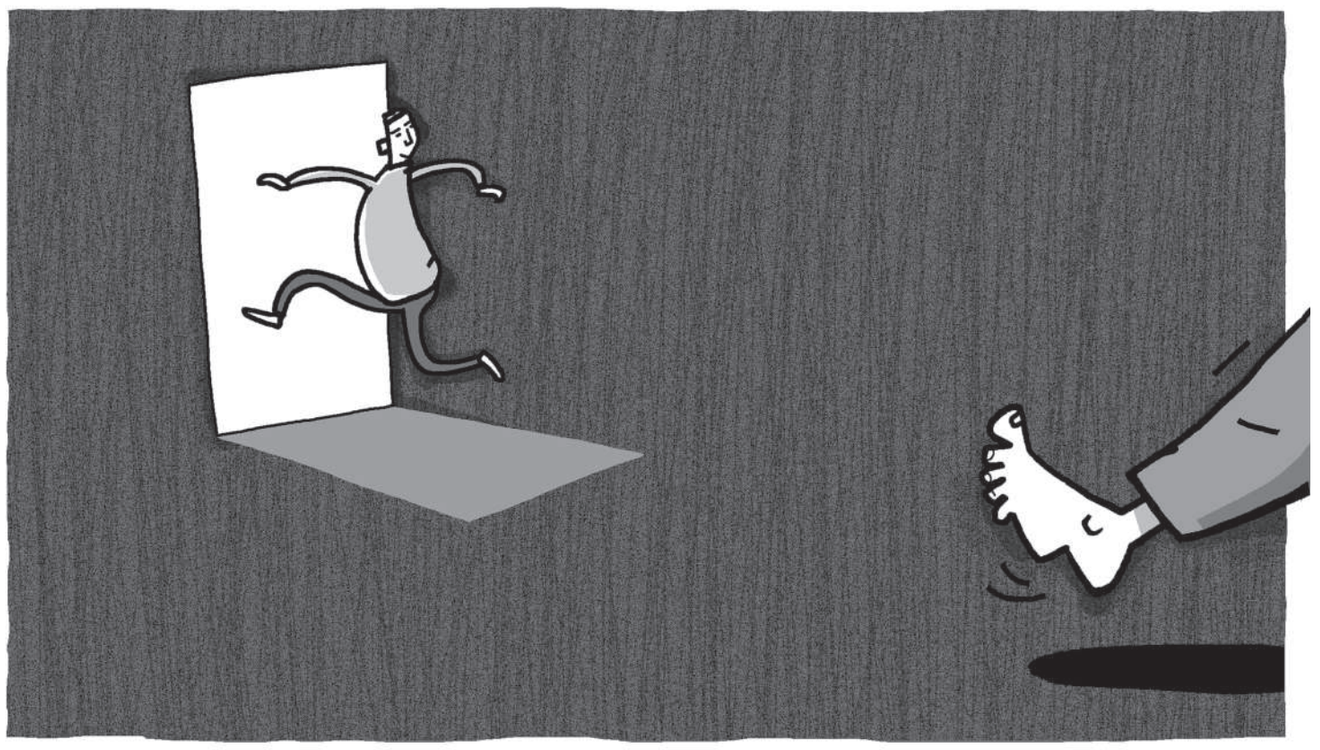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없을 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뜻을 아신다면 그 고는 바로 멸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어넘은 일이 얼마나 있나.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뛰어넘고 있을까. 어떠한 게 닥쳐도 오만과 아만, 아상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받어들이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난 여러분들한테 말을 예쁘게 매끈하게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잘하지 못하는 그 말은 참 진실한 말입니다. 나만 진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울어도 같이 울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나 이 모습으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하루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뛰겠네요. 하하하. 그런데 저기 모셔 놓은 분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요, 먼저 간 것도 없고 나중에 간 것도 없다 이러시거든요. 뭣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겁니다. 먼저 간 것도 없고 먼저 온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젊은 것도 없고 모두가 평존하니까 그것이 공법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 모두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 차원에 내가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될 거고, 여러분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면 내 차원이 되는 거고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은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마음이야 어찌 똑같지 않겠습니까. 생명도 같고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귀다 아수라다 축생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마음 탓입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못살게 만드는 거죠.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심부름꾼이라고 그러지만 그 심부름꾼도 아니죠. 서로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깐 공생으로 사는 거죠. 공체로 사는 거고. 외부나 내부나 똑같죠, 모두. 그런데 살면서 실천에 옮기는 게 문젭니다. 실천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예요. 내가 진짜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발견하시고 그걸 수긍해서 쥐고 나간다면 그게 반야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저 한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놓으세요. 놓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묶인 걸 볼 때에 묶인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봐서 그냥 뛰어넘으시고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는 다 알아들으시겠죠? 모두 이것저것 이렇게, 사성제니 육바라밀이니 팔정도니 뭐,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볼 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를 보신다면 바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뛰어넘지 않는다면, 하날 가지고 붙들어 매 가지고 그걸 집착을 하고 그런다면 그거 어느 때에 벗어나겠습니까. 모두 나와 더불어 몽땅몽땅 놓는다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들이 그 살아나가는데 고만 거기에서 매달려서 애를 쓰지 마시고, 그냥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그냥 사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괴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인간 공장에서 인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들 가는 거니까 그저 내 앞에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그냥 여여하게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주인공에 의해서 모든 걸 그냥 하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스스로 녹아서 나중에는 스스로 해말갛게 다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되게 된다면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쯤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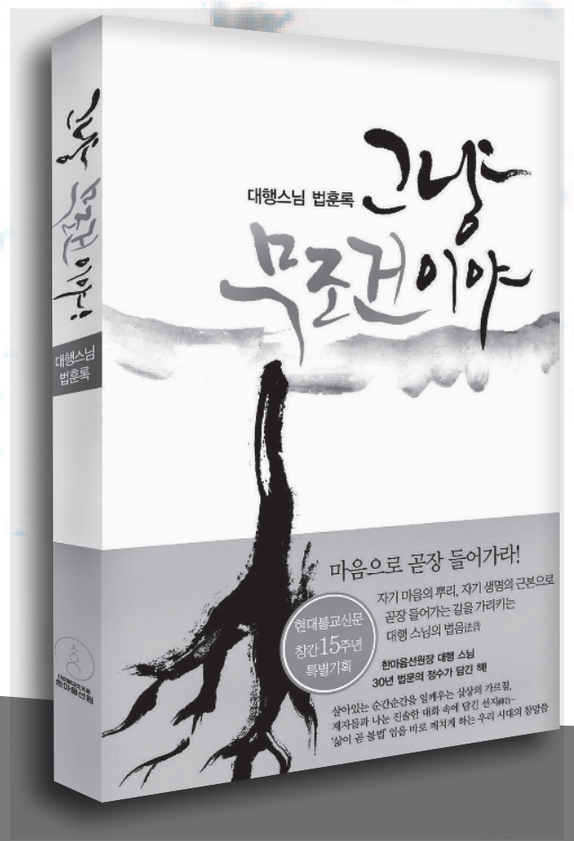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된 걸 알게 되면 그 아는 자기가 바로 자기한테 수기를 주게도 되고요. 모든 게 서로서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누가 수기를 주고 누가 수기를 받고 이런 게 없죠.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꾸 화해서 말입니다. 내 자성 주인공이 화해서, 참 연등불로 화해서 나한테 수기를 주어도, 그것이 그놈이 나를 줬고 내가 그놈이 됐고 그러니까 누가 준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죠. 그렇게 해 가는 것이지, 누가 수기를 주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고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 진짜 자기 법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그냥 법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알고 귀로만 듣고 안다면 자기가 실천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마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 욕심이 딸려 있으면 그냥 모두가 살기가 어렵지만 욕심이 깔려 있지 않다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마 다를 겁니다. 왜 다른가. 나는 지금 금방 죽는다고 펄펄 뛰어도 고만이고 살았다고 벌떡 일어나도 그만이니깐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냥 눈 번쩍 뜨고선 그냥 여여하게 그냥 한 길을 맞겠습니까.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마음공부의 길에 어떠한 게 닥치더라도 다 치우고 가야 됩니다

☞ 21면에서 계속

가족들이 속을 썩여요

질문 :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같이 속을 썩이네요. 그래서 마음공부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자기를 놔두고 상대를 믿는다면, 자기 빼놓고 상대를 믿는다면, 그 믿는다고 하더라도 대신 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똑바로 아시고, 똑바로 행하시고, 진짜로 믿어야 그 도리가, 무궁무진한 도리가 바로 나오고 '이 세상의 우주 천체가, 은하계나 태양이나 돌아가는 이 우주 천체가 우리네들 살림살이와 똑같구나. 수명이 짧고 길고 그럴 뿐이지 그것은 똑같구나.' 하는 거를 느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투를 잘한다, 술을 잘 먹는다 그래서 속이 썩는다 이러더라도, 그리고 하루 이틀 안 들어온다 이러더라도, 자식이 잘못하고 안 들어온다 이러더라도 입으로 욕을 하고 그걸 말로다가 끌려고 그러면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마음인데, 둘이 아닌 주인공인데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잖아!' 하고서, 열흘이 됐든 스무날이 됐든 들어오면 부드럽게 말해 주고 "그 스무날이나 다니면서 몸이 해쳐지면 어떡하느냐." 외려 위로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저 사람이 부처가 됐나?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하는 대로 입력이 되면서 '에이! 뭐, 해 봐도 만날 그 타령이고….' 인제 그때는 하기가 싫어져요, 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거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기 싫고 스스로 먹기 싫고 그래야 안 먹는 거지 남이 먹지 말란다고 안 먹고 남이 욕을 한다고 그거 듣나요? 마음으로 고장 난 건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데서도 부드럽게 해 주시고요. 자식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업이 그냥 입력된 게 다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가서 모두 물러서게 하죠, 녹여 버리고. 용광로에다 다 넣듯이.

여러분운 아상이나 아만이나 이런 게 말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습관이 되고 관습이 돼 가지고 그냥 남을 섭섭하게 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주인공에다 맡기지, 상대방을 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느니 네가 미우니 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 참견하다 보면 자기가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도의 길은 관 속에 들어가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탓을 하고 그런다면 물질세계에 사는 거기에 얽매이는 거지, 그게 도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뚱이가 통입니다. 통 안에는 별의별 그 모든 그 생명들 의식들이, 즉 저희들이 살아온 그 의식들이, 차례차례로 업보며 유전성이며 다 가지고 있는 생명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게 팥죽과 같지요. 팥죽 방울 나오듯 하는 거죠. 그 통에는 팥죽이 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팥죽 방울을 나오지 않게 하려면 불을 첫째 물려야 합니다. 불을 물리면 팥죽 방울이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죽은 세상을 공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산 세상은 공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세상을 다 알아야 보이지 않는 데서 산 세상을 둘 아니게 이끌고 나가죠. 그러니깐 '죽어야 너를 본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죽으러 가는 놈이 이것 탓하고 저것 탓하고….

내가 왜 이 집 짓는 데도 상관 안 하느냐. 이거 봐요. 부처가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고만이지 나한테 꼬리표 붙여 놨습니까, 그 절 지으라고? 돈이 없어도 그놈이 있으면 할 거고 돈이 있어도 아니면 못 할 거고 그런데 아, 그놈이 하는 거를 내가 시자로서, 둘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걱정을, 걱정할 거나 안 할 거나 다 한단 말입니다, 그냥. '왜 공부가 안되느냐, 왜 답답하냐' 이런 것도 걱정이죠. 그것도 그놈한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딴 놈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만 아상을 끊으려고 하고 이런대서야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물 흐르듯 하는 건데.

물은 바로 똥물이나 구정물, 핏물, 고름물, 흙탕물, 맑은 물 다 섞인 게 한바다예요. 바다라면 그걸 다 가라앉혀서 그냥 아무게 들어가도 바닷물이지 똥물이라고 안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 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똥물이든 핏물이든 젖는 것이 법의 도리다. 젖는 거. 어디에나 다 젖죠. 그러니 똥물에 젖는 거나 맑은 물에 젖는 거나 핏물에 젖는 거나 젖는 거는 매일반인데 이거는 내버리고 저거는 갖고 이럭하면 그 젖는 도리를, 크게 생각해서 광대하고 무변한 그 도리를 절대 납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죽으러 가는데, 만약에 사찰에서 무슨 일을 주지라든가 뭐, 그 아랫사람이 했는데 그거 서로 얘기를 안 하고 한 것도 있고 얘기를 하고 한 것도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개의치 말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이, 형님이 되면 "형님!", 아우가 되면 "아우, 그건 이렇게 나한테 말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아이, 형님! 이럭하고 이러이러해서 그랬어요." 하고 얘기를 할 때 다 풀리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꽁하고 여기다가 넣어 둔단 말입니다. 넣어 두니까 같이 사는 것도 밉고 같이 보는 것도 뭐 그렇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색한 게. 그런 게 자꾸 싹 튼단 말입니다. 싹트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때는 다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헤어져 버려요, 마음이. 그러면 육체도 '아이구, 내가 이럭하고 살면 뭘 해?' 그러곤 이쪽으로도 떠나고 싶고 저쪽으로도 떠나고 싶은 그런 충격이 드는 거죠. 우린 비구니만 그런 게 아니라 비구도 그렇고 비구니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럭하고 어떤 사람은 그럭하지 말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 **이 생활 속에서 행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참선입니다.**
> **만약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진다면 그 길을 당도하지 못합니다.**
> **그래서 생사도 놓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그 상대방이 얼마만큼 다져졌나 그걸 보기 위해서 고승들끼리 문답을 했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말고 일행이 뚱그렇게 그려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너 여기 그어 놓은 데 여기 들어오면 그냥 안 둔다." 하니깐 아무 소리 없이 가서는 그 뚱그렇게 그려 놓은 거를 발로 쓱쓱 지워 버리고선 합장을 하더랍니다. 그 소리 어떠세요? 그만큼 되려면 지금 우리 중들도 어떻게 집을 짓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서로 좋게 얘기해서 좀 거슬리면 "이건 이렇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님은 어떠세요?" 또 아우가 그랬으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우는 어떠냐?"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얼마나 화목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즉 말하자면 죽은 세상의 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손색이 없죠. 가고 옴이 없이 왕래하면서 가고 오고, 함이 없이 일체 법을 다 행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서 행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참선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만일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한다면 그 길을 당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사도 놓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잘된다 못된다 이런 말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번 다 죽는데 그걸 뭘 그렇게 연연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저 오는 거 내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말고 그냥 편리하게 사람의 도리로 그냥 사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큰스님처럼 자비하게 아이들을…

질문 :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격이 좀 무뚝뚝한지 아이들이 제게 가까이 오는 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아이들을 엄마같이 따뜻하게, 큰스님처럼 자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답변 :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이 틈을 주지 않는 마음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한 치의 틈도 없이 돌고 있는 도리를, 본래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 치의 틈도 없이 돌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부터 자기의 근본은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상대적 세계를 초월하여, 고정된 바 없이 쉴 사이 없이 나투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본래 그 어떠한 악업 선업마저도 붙을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상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부처님께서는 '생활에 어떠한 악업 선업이 있다 해도 결코 거기에 속지 말라, 걸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자리는 어디에도 고정되게 머무는 바 없고 그 어디에도 쉴 새 없이 나투어 돌아가고 있으므로, 그것을 "공했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진실하여 결코 물러섬이 없다면, 마치 타는 불에 떨어지는 눈처럼 어떠한 악업이라도 스스로 녹아버려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인공에 대한 믿음에 물러섬이 없다면 자연히 일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일체를 둘 아니게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자비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지 위에 그려진 글씨를 알려고 10년, 20년을 애쓰지 말고, 글씨 쓴 백지, 곧 "너 자신부터 알아라! 너 자신부터 믿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탁 터지게 되고 또 모두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모든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고(苦)'를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알려고만 하지 하나라도 실행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쉬고, 알려고 하는 그놈이 누구인가를 지켜보십시오.

환자들과 하나 되어 치료하는데…

질문 : 저는 의사로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환자들과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치료를 했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진 환자 중 일부는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 그거는 선생님이 앨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참자기가 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모습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깐 근본 자리에 그냥 맡겨 놓으시면 되죠. 편안하게 그냥, 마음은 항상 거기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그걸 편안히 놓으세요. 놓으시면…,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 되면 꼭 죽습니다, 그건. 살 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요. 그 죽은 사람은 꼭 죽어야 돼요. 그거는 누구가 살라고 살라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죽어가는 사람은 꼭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죠. 생사천에 가 보니까 그냥 모두 촛불이 켜 있는데 그 불이, 초가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아주 짧게 다 켜져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요만큼 남은, 생명이 요만큼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요만큼 남은 생명을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런 거를 알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죽는다 산다, '죽는 거를 꼭 내가 살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죽는 것도 살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죽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만 벗었지, 그 영령은 그대로 살리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유전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살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깐 살려도 살리는 거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거를 신경을 자꾸 쓰시고 그러면 몸이 편안치 않죠. 허허. 몸을 편안하게 두세요.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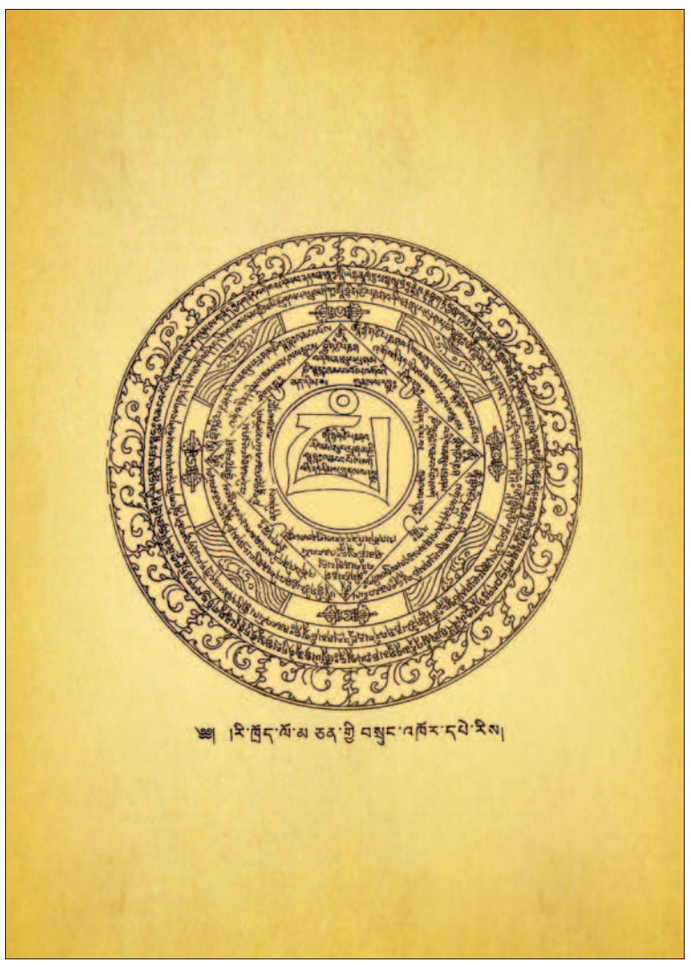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모두들 건강하세요
(코로나 예방 만다라)

우리는 희망으로 움직이고 희망으로 살고 있어요. 희망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잘 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잘 났든 못났든, 잘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못난 것과 못하는 것에 중심을 두면 살기 어렵죠. 실패로 살지 말고 희망으로 살아요. 희망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자체가 희망의 밝은 빛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다 괜찮을 거예요. 결코 한 순간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만다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만다라' 는 사캬티진 존자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만다라'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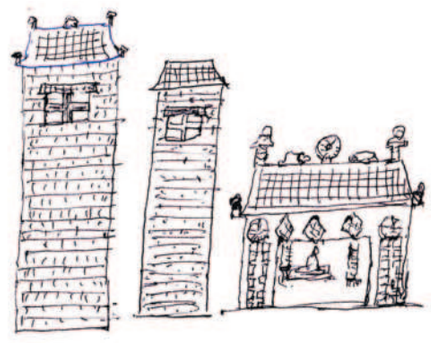


⑤ 동티베트– 여정의 시작

촉으로 가는 길 멀고도 험하다



버스타고 가다가 내려 냇가의 티벳식 불탑과 경석(오른쪽)이 어우러진 모습.



티벳 닝마파 사원 증극사의 모습.



오명불학원 가는 길 입구에 있는 조장 보호구역.

지난 2013년 SBS에서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방영된 동티베트의 오명불학원과 야칭스 사원을 담은 '캄 1000일의 기록' 이란 다큐를 인상깊게 보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그 곳에 반드시 가 보겠노라 서원하였다. 그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서인지 드디어 2015년 봄날에 100여 대중의 스님과 함께 '정우 스님과 함께하는 동티베트 순례' 길에 올랐다.

먼저 중국 사천성의 성도인 청두(成都)로 가서 기원전의 수리시설인 이빙 부자가 건설한 도강언(都江堰)을 둘러 보았다. 고대 우(禹) 임금의 경우를 보듯이, 역대 중국 왕조의 흥망은 황하나 장강의 범람을 막는 치수사업에 있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곧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동티베트 순례길에 나선다. 버스로 꼬박 이틀 동안 험난한 길을 달려야 오명불학원에 닿을 수 있다. 이백(李白)의 명시인 '촉도난(蜀道難)' 이란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아, 위태롭게 높기도 하구나, 촉으로 가는 길 어렵다더니 하늘로 오르기보다 더 어렵구나"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무엇보다 고산증세로 인해 점차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턱에 차오른다. 더군다나 변변한 위생시설이 없어 볼 일을 보는 것도 지난한 문제이다.

동티베트 지역에 들어서면 곳곳마다 바람에 나부끼는 타르쵸와 룽다 깃발들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람따라 부처님의 법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기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티베트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비원을 담아 하늘에 전해지기를 빌어본다.

티베트식 불탑이 자리한 냇가에서 삼삼오오 둘러앉아 점심을 먹는다. 마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소풍이라도 나온 것 같다. 티베트식 불탑위로 냇가를 가로지르는 타르쵸의 향연은 마치 천상의 화원을 보는 듯 하다. 돌에 새긴 '옴 마니 반메 훔' 오색 티베트체 글씨를 어루만지며 필자도 소원을 빌어본다.

점심 공양 후 근처 현지인 집의 옥상에 오르는데, 통나무 하나를 통째로 도끼질해서 계단처럼 만든 것이 이채롭고 아름답다. 마치 마곡사 창고 이층을 오르는 나무계단을 닮았다. 광고인 박웅현 선생이 감탄한 그 솜씨이다. 옥상에서 바라보면 곳곳에 숨어들어 볼 일을 보는 스님네의 모습까지 한 눈에 들어온다. 어쩔 수 없이 자연인들이 되어가는데 인간의 생리현상은 수오지심에 앞선다.

오명 불학원 · 야칭스 가는 길
험로 · 고산병 등 고행의 여정
그래도 우리는 꼭가야만 한다

처음 들린 곳은 낭마파 사원으로 스님 5백여 명이 수행하고 있는 증극사(曾克寺)란 사찰이다. 주지스님께서 직접 나와 카닥이란 흰 천을 모두의 목에 걸어 주시고 수요유 차와 다과를 대접해 주신다. 먼 이국에서 찾아온 스님네를 반기고 공경하는 그 마음이 참 곱고 아름답기만 하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만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어린 동자승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학교를 다녀오는 길인지 승복을 입은채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다. 그 눈동자가 동티베트의 하늘을 닮아 어찌나 맑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또한 그 미소는 초원의 들꽃을 빼닮았다. 우리 천진스런 아기 부처님들이 잘 자라나서 부디 훌륭한 스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으로 지흠사(至欽寺)를 방문해 파드마삼바바 동상 앞에서 입재식을 가졌다. 지도법사 정우 스님이 고불식에 이어 입재사를 하며 순례의 의미에 대해 고구정녕한 법문을 해줬다. 대중 스님들은 물론 현지 한인 청년 불자까지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리는지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법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엄마 손을 잡고 온 어린 소녀의 눈동자와 미소가 단연 압권이다. 마치 내 티베트 딸 내미인 초모랑마 아래 팅그리 마을의 케샹을 생각나게 한다. 또한 티베트 불자들이 초원위에 텐트를 치고는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기도와 주력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 진실되고 행복해 보인다.

장강의 상류인 민강(岷江)의 흙탕물 길과 낙석으로 인한 산사태로 길이 막히는 악조건을 뚫고 버스는 앞으로 나아간다. 버스 짐칸의 배낭이 물에 다 젖고 산사태로 인해 몇 번이나 멈춘 채 기다려야만 했다. 이렇듯 동티베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함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코 가야만 한다.

오명불학원 조금 못 미쳐서 조장(鳥葬) 보호구역 입구에 도착했다. 실제 조장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지만, 시신을 토막내어 독수리에게 마지막 보시를 행하는 그들의 장례법에 충격과 전율을 느꼈다. 아마도 습기가 전혀 없는 토양과 티베트 불교의 생사관에 따른 장례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근처의 들꽃이 피어 만발한 초원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다. 봄날의 초원위에 비구니 스님네가 꽃처럼 자리한다. 특히 저녁 노을을 등진 운문사 일진 스님의 뒷 모습이 자못 시적이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꽃과 사람이 한데 어울려 화장찰해를 이룬다.

〈조계종 교육부장〉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지금 절 집엔 웬 종일 잡상인들만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지금 사바세계는 코로나19 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병으로 엄청난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 다시 한 번 또 묻습니다.

수행자여! 당신은 길에서 말기 암환자, 전이된 암환자, 조현병, 희귀병(백혈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등) 환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느 대표 주자랍시고 세계 00대회라는 큰 잔치판을 벌여놓고 말로만 떠들고 있을 때,

"수행력(법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여기 조현병 환우가 오면 어떻게 하실 런지?" 묻자

"바로 정신병원에 보내어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또 공영방송에서 알만한 스님이 마찬가지로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그럼 아라한과 (신통묘력)를 증득했던 부처님 제자 1250아라한을 비롯 조사스님(서산 · 사명 · 원효 · 진묵 · 만공 · 경허 등등)

그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외면했을까요?

여기서 살펴볼 일은 부처님당시 제자들과 이후 조사스님들은 **아라한과를 얻어 한결같이 법력(신통묘력)을 보이신 이후에,** 지금까지 왜 아라한과를 득한 이는 아예 보이지 않고 저잣거리에서는 서로 경쟁적으로 얻었노라고 입으로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다.

반면 부처님은 항상 광명을 나타내어 위신력(신통묘력)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설법을 하셨다. (능엄경 등 각 경전 참조)

어느 큰스님 법문 중 "예수는 길을 가다 환우를 만나면 기도를 통해 그를 낫게 해주고 길을 떠났으나, 나는 수행의 결과인 법력이 없어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평생 참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얼마 전 안거 입제 한다고 떠들썩하게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곳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기대를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

부처님 당시 그 흔했던 아라한은 또 물 건너간 것인가?....

해서 한마디 던지고 자 함은 **수행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앉지 말고 서서 움직이는 것으로서 저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화엄경 주인공인 보현보살처럼 불보살이 계신 곳에서 보현행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자.**

아마 전 세계 매스컴이 난리가 날것이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실이 모자라 아우성인데 이때 산 중에 있는 선원, 무문관 등을 저들을 위해 내어놓으면 어떨는지.**

어차피 시주의 주인이 저들이 아니던가.

〈사례 : 희귀병〉

서울 대형사찰에 있을 때 동안거는 끝나고 00대학 학부생활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대웅전에서 새벽예불과 금강경독경을 마칠 무렵 주지스님이 법당에 들어왔다. 독경을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주지스님이 보고 가라며 주지실 로 안내하는 것이다.

들어서자마자 쇼파에 앉으라고 하고는 사무실 문을 열고 혹 소임자들이 있는 가 살피고는 문을 닫고 얘기하는 것이다.

대뜸 "자네 법명이 00 맞는가" 라고 하길래 "맞습니다." 했다. 그리고 "자네 고향이 00 맞는 가"라고 하길래 "맞습니다." 했다. "자네 여기 온지 얼마나 됐냐?"고 하길래 "0년 되었고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대웅전에 예불과 기도를 했냐?"고 하길래 "태백산 은사절에서 내려와 학교 기숙사 생활 0개월 빼고, 0년 0개월째 부전을 자처하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절 들은 아예 부전을 두거나 아니면 사중스님들이 몇 개월씩 돌아가며 부전 소임을 하고 있다.

소납이 있던 절은 후자에 속했고, 스님들도 수십 명이 되었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듣고 이 얘기는 우리들 외에 절대 사중스님들이 알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는 것이다.

사실 오래전부터 주지스님과 인연이 되어 신행생활을 하시는 분이 약 6개월 정도 소식이 없다가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물으니 "그동안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하며 대뜸 "법명은 00이고 고향은 00이며,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키는 어느 정도 되며 등등해서 꼭 좀 찾아 달라."는 것이다.

얘기인 즉 스님과 통화 3일 전 새벽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서 빙그레 웃고만 있다가 사라졌고, 둘째날 새벽꿈에 또 그 스님이 나타나 미소만 짓고 있길래 법명을 물으니 00이라 하였고, 그 다음 날 삼일째 새벽꿈에 또 나타났길래 이번에는 고향이 어디냐고 하니 00이라고 하며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주지스님은 상좌스님을 시켜서 우리절에 이런 스님을 모르게 꼭 찾아보라고 해서 자네를 찾아냈다고 한다. 사실 큰 절 주지스님들은 대외적인 일에 얽매이다 보니 사중스님들 법명은 물론 얼굴조차 알기 어렵다.

자네 새벽에 예불과 기도가 끝나면 몇시나 되냐고 묻길래 06시정도 돼야 끝난다고 하니,

그럼 신도들 눈에 안 띄게 다 나가고 난 뒤 그 신도를 내일 새벽에 데려올 테니 7일간 기도를 부탁한다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사중에 소문이 나면 타스님들로부터 자네가 힘들어 질 걸세 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신도들이 다 나가자, 주지 스님이 먼저 들어오고 이어 상좌 스님과 신도분이 들어오는 것이다.

주지스님이 나를 좀 밝은 곳으로 오게 하여, 그 신도 보고 이 스님이 맞는가? 잘 보라 하자, 꿈에서 본 스님이 꼭 맞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7일간 기도를 마치는 날 소납이 한마디 했다.

보살님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문을 가지고 3일간 더 하세요 하자, 주지스님이 왜냐고 묻길래

보살님한테 직접 물어 보십시오 하니, 그 보살이 오늘 여기 오기 직전 새벽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00을 한쪽만 주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3일간 기도가 끝나는 새벽꿈에 나머지 한쪽을 받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답례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길래 다 사양하고 몇몇 분들과 같이 경기도 모 암자에 가서 그들은 천배를 했고, 소납은 삼천배를 했었다.

그 때 그 일이 있은 후 사중에 소문이 순식간에 나게 되어 사중스님들로부터 겪은 고초는 너무나 컸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 즈음에 새벽의식이 끝나고 나오는데 낯선 노부부께서 "스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절 뒤로 가서 조용이 물었다.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는지? 뵙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오래전부터 정신병원을 전전하는 조현병을 앓아 왔다."고 하길래 "그럼 잘못 찾아왔다."고 하며 한사코 물리치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 자세히 물을 테니 조금도 거짓말 하지 말라며 묻기 시작했다. 그분들은 젊어서부터 서울 대형 사찰 신도이고 그동안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럼 어느 분이 여기 얘기하더냐 했더니 큰절 00큰스님께서 어느 절, 법명까지 적어 주며 빨리 찾아가라고 그리고 거절하면 내가 보냈다고 하라고...

그 당시 소납 사정도 여의치 않지만 하는 수 없이 그래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몇 월 며칠 일자를 정해주고 그날 예불 끝나는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오시되 그 절에서 준 부적 · 염주 등 방편물을 다 가져오라고 했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보내고 난 뒤 소납이 졸업과 동시 그 일을 해주고 떠나려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다만 믿을 만한 신도분한테 며칠날 노부부께서 예불이 끝나면 남아있는 분이 있을 테니 소승이 말 못할 사연이 있어 이절을 떠나 태백산은사스님 절로 갔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부탁했으나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저린다.

그렇게 졸업과 동시에 태백 은사 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뜻한 바가 있어 서울 인근 토굴에서 또 다시 대학원생활을 십년 가까이 했었고, 그 당시 노부부에게 얘기를 전해준 그 분들은 몇 십 년이 흘렀는데도 여기 거제도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

소납이 있는 사찰은 잡귀행상에 불과한 비불교적인 것 술 · 담배 · 점 · 관상 · 사주 · 삼재풀이 및 기도 · 산신기도 · 용왕기도 · 방생 · 성지순례 · 다도 · 수능합격기도 · 신년기도 · 위폐(만년 · 평생 · 영구) · 스님생일 · 우담바라 · 각종 바위 · 탑돌이 · 경을 머리에 이고 도는 행위 · 돈 액수에 따른(큰 등 · 작은 등) · 등 종류(108 · 사업성취 · 재수 · 합격 · 승진 등등) 부전 · 공양주 · 그림(소승은 출가전 화가였음) · 극락발원티켓 · 철야기도 · 신도회 · 절 짓는 불사 · 각종기도(운맞이 · 운수대통 · 재수대통 등) · 진산식 · 합창단 · 산사음악회 등등 '생전예수제'에는 재 지낼 돈을 불우이웃에 기부하고 미리 선업을 닦도록 하기 위해 복지관 · 장애인 단체 · 요양원등, 아니면 시골 부모 찾아서 효행을 하도록 함.

이러한 잡귀행위를 일체 배제하다 보니 재정이 항상 바닥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공양(교육불사)을 하기 위해 이 지면을 빌리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에서 최고의 공덕은 금강 경의말씀과 양무제와 달마스님의 대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찰 살림살이는 가구를 비롯 모든 것 줏어다 쓰고 있고, 양말 등 모든 것은 전량 기워 쓰고 있으며, 적당히 농사지으며, 아나바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찰건물 및 내부 조성물도 일체 시주 돈을 받지 않고 건립하였습니다.

누구든 법문을 듣고자 하면 오실 필요 없고, 수행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보현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는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방송에 유명한 큰절 큰 00들이 집단으로 수백만 원씩 걸어놓고, 밤새워 도박을 하다 예불직전인 새벽 3시에 마치고 법당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또 서울 강남에 있는 000선원 큰 00은 00선원장도 하고 수십 안거를 충만했다고 하며 법화경 00찾아서 라는 법어집도 냈던 이가 하는 짓거리는 모텔 · 호텔에서 신도를 전라로 만들어 소위 몸기도 한다면서 더듬기나 하고 제발 정신 좀 차리자.

그런 돈 있으면 이 소납이 언론을 통한 바른 법공양이라도 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면 기꺼이 받겠다.

참고로 신문사 지면 빌리는데 일회당 000만원이 든다.

※ 알립니다.

코로나 환란과 관련하여 연등사신도님들과 더불어 이 환란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신도님들이 한결같이 인연되는 전 불자와 같이하면 어떻겠느냐고 하길래 다시 알리고자 합니다.

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소, 이름 등 연락처를 알려 주시고 동참금은 정성껏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비 전액은 신문사 지면을 통한 법공양을 위해 쓰임을 알립니다.

소승이 독경 및 일일이 축원해야하기에 많은 인원은 받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055-633-6555 (010-3143-5302)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8291-9423 (변 ○○)**
- **010-5699-3173 (박 ○○)**
- **010-4807-6932 (박 ○○)**
- **011-9143-0098 (김 ○○)**
- **010-9707-4808 (박 ○○)**

